

석사학위논문

한국인과 중국인의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인식과
지속이용의도

2020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조민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명광주

한국인과 중국인의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인식과
지속이용의도

Perception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of Aroma
Therapy of Korean and Chinese People

2019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조민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명광주

한국인과 중국인의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인식과
지속이용의도

Perception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of Aroma
Therapy of Korean and Chinese People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조민산

조민산의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9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한국인과 중국인의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인식과 지속이용의도

한 성 대 대 학 교 예 술 대 학 원
뷰 티 예 술 학 과
에 스 테 틱 전 공
조 민 산

한국인과 중국인의 아로마테라피 효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러한 인식이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영향 원인이나 이유를 검증함으로써,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로마테라피 서비스 방향과 아로마테라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 기여할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과 설문지를 통한 실증연구를 병행하여 검증한 후 결론을 내렸다. 연구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과 중국인의 아로마테라피 효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한국인과 중국인의 아로마테라피 효과에 대한 인식은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아로마테라피의 생리적 효과인식, 심리적 효과인식, 대뇌기능강화 인식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었다. 부작용 인식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피부 발적, 발진, 건조, 가려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인보다 중국인의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 외 두통,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긴장, 예민해짐, 메스꺼움, 구토증상에 대해서는 국적별로 비슷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아로마테라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국인은 피부관리실과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로마테라피 서비스 가격은 양국인 모두 적당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아로마오일을 이용한 마사지법으로 스트레스 완화나 근육이완, 통증완화를 한 달에 1회~ 4회 이용하고 있었다. 아로마테라피를 이용한 총 시간은 양국 공히 1개월 미만~ 5년 이상, 이용한 아로마테라피의 종류는 한국인은 1종류, 중국인은 10종류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인은 라벤더, 유칼립투스, 일랑일랑 오일, 중국인은 라벤더, 로스, 프랑킨센스를 선호했다. 또한 한국인은 아로마오일의 성분과 효능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중국인은 아로마오일의 효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람과 아로마테라피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비슷했다. 한국인은 아로마테라피를 제품생산회사에서, 중국인은 선배, 동료, 아로마테라피스트를 통해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인과 중국인의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사전지식 및 이용경험은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아로마테라피에 관한 사전지식과 이용경험은 중국인의 사전지식이 더 높았으나, 한국인의 아로마테라피 사용경험은 중국인의 약 2배 정도 많았다. 한국인이 아로마테라피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관심은 있지만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었고, 중국인은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인식함으로써 아로마테라피 효과에 대한 신뢰감이 한국인보다 낮았다. 또한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사전지식 및 이용경험이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에 미치는 영향 중 대뇌기능강화 인식과 부작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양국인 모두 사전지식이 많으면 효과인식도 높았으나, 이용경험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국인의 아로마테라피의 생리적 효과 인식은 사전지식과 이용기간이 많을수록 높았고, 중국인은 사전지식이 높을수록 효과인식이 높았다. 또한 아로마테라피의 심리적 효과인식은 한국인은 사전지식, 중국인은 이용한 경험에 있고 사전지식이 많을수록 효과인식이 높았다.

셋째, 한국인과 중국인의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과 만족도는 향후 지속이용의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과 만족도가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속이용의도가 높았다. 특히 한국인은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가 많았고, 중국인은 품질, 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가 많았다.

본 연구는 서울과 상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증조사가 실시되었고, 아로마테라피의 효과에 대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임상증거를 직접 검증할 수 없었고, 아로마테라피 효과에 대한 전문교육에 대한 접근하지 못했으며, 몸과 마음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 수치로 기록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으며, 아로마테라피가 향기, 즉 후각적인 미묘한 감성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는 등 몇 가지 한계를 있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미흡했던 한국인과 중국인의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문제들을 검증함으로써, 양국인의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인식을 학술적 데이터로 축적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한국인과 중국인을 위한 아로마테라피 서비스의 방향과 서비스 내용을 탐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성과라고 할 것이다.

【주요어】 아로마테라피, 인식, 사전지식과 이용경험, 지속이용의도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1.2 연구문제	3
1.3 주요용어의 조작적 정의	4
1.3.1 아로마테라피 효과	4
1.3.2 사전지식	4
1.3.3 지속이용의도	4
1.4 연구범위 및 연구의 구성	5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6
2.1 아로마테라피의 의미와 영역	6
2.1.1 아로마테라피의 의미	6
2.1.2 아로마오일의 특징	7
2.1.3 아로마오일의 종류	8
2.1.4 아로마테라피의 영역	10
2.2 아로마테라피의 임상효과	11
2.2.1 아로마테라피의 생리적 효과	13
2.2.2 아로마테라피의 심리적 효과	15
2.2.3 아로마테라피의 대뇌기능 강화효과	17
2.3 아로마테라피 인식의 영향요소	19
2.3.1 사전지식	19
2.3.2 이용경험	20
2.4 한국과 중국의 아로마테라피	22
2.5 지속이용의도	23
2.1.1 지속이용의도의 개념	23
2.1.2 지속이용의도 관련 선행연구	24
III. 연구설계	25
3.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25

3.2 연구 참가자	26
3.3 설문지 구성	26
3.4 조사	28
3.5 분석	28
IV. 조사결과 및 분석	29
4.1 신뢰도 검증	29
4.2 조사참여자	30
4.3 연구문제별 분석결과	33
4.3.1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 차이	33
4.3.2 아로마테라피의 사전지식과 이용경험이 효과인식에 미치는 영향	37
4.3.3 아로마테라피의 효과인식과 만족도가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59
V. 결론 및 연구한계점	63
5.1 결론	63
5.2 연구한계점 및 제언	65
참 고 문 헌	67
부 록	73
ABSTRACT	93

표 목 차

[표 2-1] 24종 아로마 오일의 종류	8
[표 2-2] 아로마테라피 효과 관련 선행연구	12
[표 2-3] 아로마테라피 이용경험의 요소	20
[표 2-4] 재 구매의도 과정	23
[표 2-5] 지속이용의도 관련 선행연구	24
[표 3-1] 설문지 구성	27
[표 4-1] 영역의 신뢰성검증	29
[표 4-2] 국적에 따른 일반적 사항	30
[표 4-3] 국적에 따른 아로마테라피 생리적 효과인식 차이 검증	33
[표 4-4] 국적에 따른 아로마테라피 심리적 효과인식 차이 검증	34
[표 4-5] 국적에 따른 아로마테라피 대뇌기능강화 인식 차이 검증	35
[표 4-6] 국적에 따른 아로마테라피 부작용 인식 차이 검증	36
[표 4-7] 국적에 따른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차이 검증	38
[표 4-8] 국적에 따른 아로마테라피 이용경험	39
[표 4-9] 국적에 따른 아로마테라피 이용경향	41
[표 4-10] 국적에 따른 가장 선호하는 아로마테라피 오일	45
[표 4-11] 국적에 따른 아로마테라피 교육을 받은 장소	47
[표 4-12] 국적에 따른 아로마테라피 교육 내용 중 필요한 것	48
[표 4-13] 국적별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이용경험이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 전체에 미치는 영향	49
[표 4-14] 국적별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이용경험이 아로마테라피 생리적 효과인식에 미치는 영향	51
[표 4-15] 국적별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이용경험이 아로마테라피 심리적 효과인식에 미치는 영향	53
[표 4-16] 국적별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이용경험이 아로마테라피 대뇌기능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55

[표 4-17] 국적별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이용경험이 아로마테라피 부작용 인식에 미치는 영향	57
[표 4-18] 국적별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 아로마테라피 만족도가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59
[표 4-19] 국적별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 아로마테라피 만족도가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61

그림 목 차

[그림 2-1] 아로마 오일의 흡수와 배설	11
[그림 3-1] 연구 모형	25

I. 서 론

1.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그리고 사고방식의 변화로 인해 편안하고 행복한 삶, 친환경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로하스(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즉 자신의 건강을 위한 자연친화적 웰빙생활 의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많아짐으로써 정신과 몸을 균형감 있게 회복시켜주고, 외모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자연의 식물 속에 들어 있는 수많은 좋은 성분들을 이용한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가꿔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아로마테라피 이다. 아로마테라피는 천연의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서 공해가 없고 편안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재료이고, 피로와 스트레스 탈출방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아로마테라피를 1990년대 말부터 관심을 가져왔고 이를 의료와 뷰티를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비누, 화장품, 향초, 방향제, 그리고 향수제품으로 개발 양산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인해 아로마테라피의 발전 속도나 이용정도가 다르다. 아로마테라피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발전시켜온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식물의 구성 성분을 끊임없이 연구해왔으며, 그 성분을 분해 추출하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은 식물자체를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더 많은 신경을 써왔다. 중국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물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체로서, 그것이 일단 분해되면, 그것으로 그것이 가진 많은 유효성분이 상실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고의 영향 때문인지 현재 중국의 아로마테라피는 아직도 발전이 미흡한 편이다. 중국 ‘국내외향기정보(国内外香化信息)’에 따르면 중국의 현재 화장품

시장규모는 무려 800억 원에 달하지만, 이중 아로마테라피 관련제품의 소비는 겨우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아로마테라피에 관한 연구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최근 5년 동안 2015년 19개, 2016년 15개, 2017년 14개, 2018년 26개, 2019년 19개에 달하고 있고, 아로마테라피에 대한인지, 활용, 교육 등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의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연구는 임상적인 측면연구와 피부미용학적 연구들에 치우쳐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인식과 지속이용의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한국인과 중국인은 아로마테라피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그 인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고, 또한 그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본 연구는 연구자의 이러한 개인적 관심과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했다. 한국인과 중국인의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그러한 인식이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그리고 그 원인이나 이유는 무엇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학술적으로는 아직도 비교 분석되지 않은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인식을 조사하여 그 응용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마련하고, 실무적으로는 보다 정확한 소비자의 니즈와 원츠를 분석함으로써 소비자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로마테라피 서비스 방향과 그에 맞는 아로마테라피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이를 구명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문제를 핵심 연구문제로 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인과 중국인의 아로마테라피 효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한국인과 중국인의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사전지식 및 이용 경험은 아로마 테라피 효과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한국인과 중국인의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과 만족도는 향후 지속 이용의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1.3 주요용어의 조작적정의

1.3.1 아로마테라피 효과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아로마테라피가 약리적, 생리적, 심리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Buckle, 2001).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아로마테라피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생리적 효과(혈압, 통증의 조절, 비만조절, 수면조절, 피부조절), 심리적 효과(스트레스조절, 우울조절, 불안조절, 피로조절), 대뇌기능강화 효과(뇌파, 인지기능, 집중력, 기억력)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3.2 사전지식

사전지식은 무엇인가를 위한 배경지식, 즉 특정 내용이나 이슈에 대해 소비자가 기억하고 체득하고 있는 선행지식 등을 가리킨다(정미희,2002). 본 연구는 이를 준용하여 사전지식을 아로마테라피에 관해 소비자가 이미 체득하거나 경험한 것으로 얻은 전문적 지식, 또는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인지내용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3.3 지속이용의도

Mcdougall & Levesque(2000)는 지속이용의도(Continuous Usage Intention)를 이용자가 이미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다시 이용하고 싶어 하는 정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권장하는 정도라고 정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지속이용의도를 아로마테라피를 이용해본 소비자들이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좋은 점이나 효과를 인정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향후에도 아로마테라피를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의도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4 연구범위 및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앞서 서론 연구의 필요성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인과 중국인의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인식, 그 인식의 차이, 또한 그 인식차이의 원인이나 이유를 분석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아로마테라피와 그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그 세부사항들을 분석하였고, 연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이용한 실증조사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한국의 riss(한국연구정보서비스) 및 중국의 CNKI(China National Knowledge Network)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수집자료의 대상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아로마테라피 효과에 관한 박사 학위논문이었다. 이를 통한 분석의 주된 내용은 아로마테라피 전반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활용영역, 임상효과 등이었다. 설문을 통한 실증조사는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인식, 아로마테라피에 관한 사전지식 및 임상효과(생리적, 심리적, 대뇌기능), 아로마테라피 이용경험 및 만족도, 그리고 이후 지속이용의도에 대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총 5부분으로 되어있는 본 연구의 구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문제, 주요용어의 조작적 정의, 연구범위 및 연구의 구성을 기술한 서론.

둘째, 아로마테라피의 의미와 영역, 아로마테라피 임상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 영향요소, 한국과 중국의 아로마테라피, 아로마테라피의 지속이용의도를 기술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셋째,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연구 참가자, 설문 구성, 조사, 분석을 기술한 연구 설계.

넷째, 설문의 신뢰도 검증, 조사 참여자, 연구문제별 주요 검증결과를 기록한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연구의 종합적 결론과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제언을 기술한 결론 및 연구한계점 등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아로마테라피의 의미와 영역

2.1.1 아로마테라피의 의미

자연 속에 있는 방향식물로 질병을 물리친 인간의 역사는 아주 오래 전이었다. 이미 B.C 4,000년경 중국의 한 황제가 식물추출 성분을 의학서에 처음으로 기록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윤정식등, 2013). 이처럼 아로마테라피 역사는 인류 문명의 시작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만큼 오래되었다. 각 시대환경과 문화, 그리고 종교적, 의학적, 사회적 인식에 따라 아로마테라피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소 다르기는 했지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아로마테라피 사용경험을 나누어 왔다.

정은정(2011)은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y)를 자연 속 방향성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을 이용하여 마사지, 도포, 흡입, 스프, 목욕, 좌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체내에 흡수시켜 심신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건강을 유지시켜 주고 생체리듬을 정상화시켜주는 치유요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박미경, 문은숙(2018)은 아로마테라피를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기쁨의 향기를 의미하는 ‘아로마(Aroma)’와 치료를 의미하는 ‘테라피(therapy)’의 합성한 것으로서 식물에서 추출한 향이나 오일을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수시킴으로써 두뇌와 신체기관을 자극하여 정신과 몸을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하여 순환기 활성화와 인체 항상성을 높여주는 자연대체요법이라고 하였다.

현대의학은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며 아로마테라피를 임상실험과 치료효과 연구에 적극 이용하기 시작했다. 1970년 이후에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 의학에 이용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 말 이후에는 아로마에센셜오일을 이용한 아로마테라피가 일반인들에게도 보급되기 시작(안홍석, 2006)해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지고 이용도 많아지게 되었다.

2.1.2 아로마 오일의 특징

아로마 오일은 식물의 꽃, 열매, 줄기, 뿌리, 껍질 등을 채취 가공하여 얻은 휘발성이 강한 복잡한 화학성분의 고농축 원액 물질이다. 김정희(2019)는 아로마 오일은 10~100여종의 분자로 구성되어진 천연 성분의 혼합물로서 체내 침투속도가 매우 빠른 아로마 기능과 향을 가진 물질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창수(2014)는 아로마 오일은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식물이라 하더라도 추출하는 부분과 방법에 따라서 화학적 성분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아로마 오일을 합치면 새로운 탄화수소 합체가 형성하게 되므로 더욱더 강한 시너지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로마 오일은 자연 그대로의 100%로 순수자연물질이어서 강하므로 피부에 직접 닿으면 위험하므로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오홍근(2002) 역시 모든 아로마 오일은 점막과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은 원액을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마시지 말 것과 성분 자체가 휘발성이 강하고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가 일어나고, 햇빛과 열에 기화하므로 보관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이 금지된 특정 아로마 오일은 고혈압, 임산부, 간 질환자에게 사용을 금하고,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성인의 1/2양을 희석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알러지 테스트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버가못, 라임, 레몬 등의 감귤류 오일은 감광성이 있어서 색소 침착을 만들 수 있으므로 밤에 사용하고, 낮에 사용 후 6시간 이내에는 야외활동과 자외선 노출을 피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조태동, 2002).

2.1.3 아로마 오일의 종류

조수진(2014), 장유정(2018), 정은정(2011)이 인용하여 연구에 사용한 아로마 오일 추출부위, 추출법, 향기정도, 사용용도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24종의 아로마 오일(Julia Lawless,2009)

이름	추출부위	추출법	방향	용도	특징	주의사항
라벤더 (Lavender)	꽃	증류법	꽃향 보통	종기, 여드름, 알러지, 화상, 피부염, 기미, 상처, 기관지염, 입내색, 인후염, 소화불량, 우울증, 고혈압, 불면증, 편두통	무독 무자극 무감작	안전성
캐모마일 로만 (Chamomile ,Roman)	꽃	증류법	약간 과일향 강함	민감성피부, 상처, 충기근육통, 신경통, 월경불량, 두통, 스트레스	무독 무자극	특정 피부염 유발
유칼립투스 (Eucalyptus)	잎	증류법	레몬향 강함	비듬, 전염성 피부상태, 포진, 상처, 후두염, 인후염, 감기, 열, 감염성 질환	무독 무자극	특정개인 감작작용
로즈마리 (Rosemary)	잎,꽃	증류법	캠퍼향 보통- 강함	여드름, 피부염, 습진, 모발 및 두피 동맥경화증, 근육통, 신경통, 순환장애, 기관지염, 대장염, 소화불량, 간기능 장애, 두통, 저혈압, 신경피로, 스트레스 관련 장애		임신 중 사용금지 간질환자 사용금지
제라늄 (Geranium)	꽃	증류법	장미향 그린향 보통- 강함	여드름, 모세혈관 파열, 화상, 복합성 피부, 피부염, 노화피부, 셀룰라이트, 부종, 순환장애, 인후염, 부신피질 및 폐경기 질환, 스트레스 관련 질병	무독 무자극	과민증 발할 유수 있음
페퍼민트 (Peppermint)	잎,줄기, 꽃	증류법	민트향 강함	여드름, 피부염, 치통, 기관지염, 소화불량, 감기, 독감, 두통, 정신적 피로, 편두통, 신경 스트레스, 현기증, 입냄새	무독	감작 반응 피부 저농도 사용
오렌지 스위트 (Orange sweet)	껍질	냉압 착	과일향 보통- 약함	칙칙한 피부, 지성피부, 비인, 기관지염, 감기, 독감, 신경긴장, 스트레스	광독성	햇빛 금지

레몬 (Lemon)	열매	냉압 착	과일향	여드름, 종기, 동상, 구강궤양, 기미, 인후염, 셀룰라이트, 순환장애, 소화불량, 감기, 독감, 감염	광독성	피부 자극
자스민 (Jasmine)	꽃	증류 추출	꽃향 강함	건성, 지성, 염증성, 민감성, 피부근육경련, 기침, 월경불안, 분만통증, 문체성 자궁, 우울증, 신경피로, 스트레스 관련질환	무독, 극, 무감작	특정 개인 알러지 반응
티트리 (Tea tree)	잎, 꽃	증류 법	캠퍼향 시향 강함	종기, 여드름, 화상, 비듬, 지성, 피부, 감염된 상처, 기관지염, 질염, 전염성 질병, 방광염, 가려움증	무독 무자극	특정 개인 민감성
일랑일랑 (Ylang ylang)	꽃	증류 법	꽃향 강함	민감성, 지성, 여드름피부, 헤어리츠, 모발성장, 고혈압, 우울증, 불감증, 스트레스관련 장애	무독 무자극	강한 향 때문에 적당량 사용
네롤리 (Neroli)	꽃	증류 법	꽃향 보통	흉터, 노화 및 민감성피부, 설사, 신경성 소화불량, 불안, 우울증, 신경기장	무독 무자극 무감작 무광독 성	
주니퍼 (Juniper)	열매	증류 법	발삼향 보통	여드름, 피부염, 습진, 탈모, 치질, 독소 축적, 동맥경화증, 감기, 동감, 무월경, 방광염, 월경불순, 불안, 스트레스 관련질환	자궁 수축 효과	임신 중 이 사용 금지
레몬스라스 (Lemongrass)	풀	증류 법	시트러 스향 강함	여드름, 열린 모공, 근육통, 순환장애, 대장염, 소화불량, 열, 두통, 신경피로, 스트레스 관련 질환	무독성	특정 개인 피부 자극 민감성 유발
샌달우드 (Sandalwood)	목재	증류 법	머스크 향 방향 발삼향 약함	여드름, 지성피부, 보습제, 기관지염, 후두염, 이노후염, 설사, 방광염, 우울증, 불면증, 신경긴장, 스트레스 관련 장애	무독 무자극 무감작	안정성
마조람 (Marjoram)	줄기, 잎, 꽃	증류 법	스파이 시향 약조향	동상, 타박상, 관절염, 요통, 근육통, 기관지염, 변비, 소화불량, 무월경, 두통, 고혈압, 불면증, 편두통, 신경긴장, 스트레스 관련 질환	무독 무자극 무감작	임신 중 이 사용 금지
프랭킨센스 (Frankincense)	올레 검 수지	증류 법	발삼향 목재향 캠퍼향	피부손상, 건조하고 노화 피부, 상처, 주름, 기관지염, 기침, 독감, 후두염, 방광염, 월경불순, 불안, 신경 긴장, 명상	무독 무자극 무감작	안정성
그레이프푸트 (Grapefruit)	과일	껍질 냉압 착	과일향 보통	여드름, 지성피부, 모발 성장 촉진, 셀룰라이트, 근육피로, 감기, 독감, 스트레스	무독 무자극 무감작	약간 광독성 단기간 보존
시더우드 (Cedarwood)	목재	증류 법	약간 캠퍼향	피부염, 비듬, 습진, 진균성 감염, 여자생식계: 방광염, 가려움증	무독 무자극 무감작	임신 피함

클라리세이지 (Sage clary)	잎, 꽃	증류 법	약초향 보통- 강함	여드름, 종기, 비듬, 탈모, 궤양, 주름, 인후염, 소화불량, 무월경, 백대하, 분만통증, 무기력, 편두통, 불안증, 무기력, 우울증, 스트레스 관련 장애	무독성	임신 중 사용금지 사용시 금지
버가못 (Bergamot)	열매	냉압 착출	그린향, 시트러스 향 약함	여드름, 종기, 기미, 입냄새, 구강염, 감염, 인후염, 방광염, 감기, 독감, 스트레스 관련 질병	광독성	피부 적용시 주의
싸이프러스 (Cypress)	구과	증류 법 구과 오일 추출	스파이 시향 보통- 약함	지성 및 포화수분 피부 치질, 근염, 부종, 셀룰라이트, 월경불순, 순화장애, 월경불순, 신경긴장, 스트레스 관련 질환	무독 무자극 무감작	
로즈 (Rose)	꽃	증류 법	꽃향 보통- 강함	노화피부, 염증, 화상, 에너지 회복, 불안감, 우울증	자궁 강장	
진저 (Ginger)	뿌리	증류 법	후추향 강함	관절염, 피로, 근육통, 순화장애, 기침, 인후염, 식욕부진, 오한, 독감, 감염성 질환	무독	특정개인 감작유발 약간 광독성

2.1.4 아로마테라피의 영역

1928년 프랑스 화학자 르네모리스 가테포세(Rene Maurice Gattefosse)는 처음으로 아로마 오일의 화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라벤더, 타임, 카모마일, 클로브, 레몬 오일의 효능을 연구하였고, 제2차 대전 때까지 자연적인 살균제 및 수술도구를 소독하는 약으로 활용되었다(정은정, 2011).

오늘에 와서 아로마테라피는 간호학, 약학, 의학, 대체의학, 식품학, 화장품학, 피부미용학, 교육학, 의류학, 관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연구되고 있다.

한 예로 박해리(2014)는 2% 라벤더 아로마 오일의 자율신경계 반응과 뇌파반응 측정연구에서 최적의 향과 자극효과를 나타냈으며, 긍정적 감성과 힐링효과를 나타냈다고 주장하였다.

钟瑞敏等(2005)은 아로마 오일 성분은 생물학적 활성물질로서 향산화, 항미생물, 항생충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천연식품방부제, 향산화제, 바이오농약, 식품 쪽으로의 적용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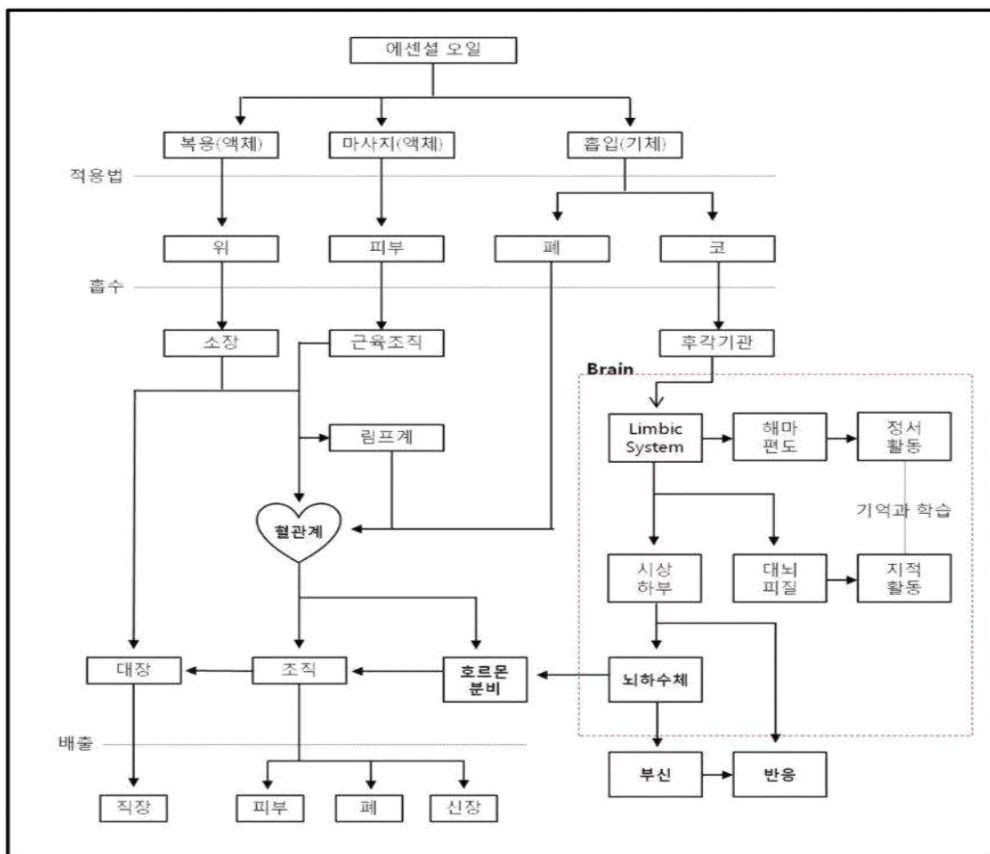
2.2 아로마테라피의 임상효과

아로마에센셜오일은 우리 인체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작용한다(김문주, 김윤정 등, 2014).

- 1) 코 > 후각신경 > 변연계 > 시상하부, 뇌피질 > 뇌하수체
- 2) 코 > 후두 > 기관지 > 폐 > 순환계 > 전신
- 3) 표피 > 진피 > 순환계 > 전신
- 4) 입 > 소화계 > 전신

그 흡수와 배출과정은 [그림 2-1] 과 같다.

[그림 2-1] 아로마오일의 흡수와 배출(박미화, 2015)



아로마오일의 흡수와 배출과정 중 아로마테라피의 인체 적용방법은 코를 통한 흡입법, 피부를 통한 마사지법, 습포법, 목욕법, 구강을 통한 복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전연아,2014). 또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혈액 속에서 화학적 신호로 전환된 식물성 향유는 신경계 전달 물질과 호르몬 대사 분비를 촉진시켜 대뇌 정신기능을 강화하고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강현미, 2008).

아로마테라피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아로마오일 블렌딩, 다양한 적용방법, 다양한 이용시간, 다양한 적용부위 등 여러 변화가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연구 간 이질성이 높아진 까닭에 연구결과도 매우 다양하였다.

다음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아로마테라피 효과에 관한 박사 학위논문 분석결과이며 각 연구들이 주장한 아로마테라피 효과는 심리적 효과, 생리적 효과, 대뇌기능 강화효과 등이었다.

[표 2-2] 아로마테라피 효과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학위	연구 요약	key word	결과
고상인 (2019)	박사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인지과제 수행 향기 흡입이 뇌파 활성도와 심박 변이도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자율신경계 뇌파 긴장완화 심리적	향기 흡입이 생리적 효율성을 높임 사고활동을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음 유도된 좌뇌 의 비대칭적 활성화
박란희 (2019)	박사	페퍼민트와 라벤더 아로마 요법이 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두뇌활동 심리적 집중력	활성에 영향을 미침 정서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
이숙현 (2018)	박사	아로마 테라피가 중년여성의 수면, 스트레스 반응 및 면역에 미치는 효과	스트레스 반응 수면 면역	생리적 스트레스 지표 혈압(SBP)떨어뜨림 수면을 증진효과
강현미 (2018)	박사	아로마요법의 스트레스 반응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라벤더오일 흡입법 스트레스	근육의 통증완화, 화상치유, 스트레스 및 불안해소, 진정, 소염, 심신안정 신체적 반응보다 정신적(심리적) 반응에 효과가 더 큼
김미은 (2017)	박사	아로마테라피가 수면에 미치는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수면	흡입 방법 보다 마사지 방법이 수면의 질 증진효과 라벤더 포함한 여러 블렌딩한 오일 사용이 수면의 질 향상효과

노기옥 (2017)	박사	아로마테라피의 발 반사 마사지가 부인암 환자의 말초신경병증, 말초피부온도,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피부온도 불안 우울	말초신경병증의 경감 말초 피부온도의 상승, 불안과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
최서연 (2016)	박사	아로마향 흡입요법이 과체중 중년여성의 식용, 수면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식용 수면의 질 주관적 스트레스	과체중 중년 여성의 식용을 조절하는데 효과
민은실 (2015)	박사	아로마에센셜오일 흡입이 자율신경계 반응, 뇌파 및 집중력에 미치는 효과	자율신경계 반응 뇌파 집중력	스트레스 지수감소 교감신경 활성화 자율신경계 활성화 비증가, theta파 활성화 부분적으로 집중력 증가
진재명 (2014)	박사	리날룰 아로마테라피가 전업주부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스트레스 생리적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을 낮게 지각하게 하는 중재효과 심리적 안정감과 우울 및 자기효능감에 효과가 있음
전면아 (2014)	박사	아로마테라피의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치유효과 메타분석	생리적 신체적 심리적 치유효과	피로가 가장 높은 수치의 큰 효과 크기 흡입법이 가장 높은 수치의 중간 효과크기

2.2.1 아로마테라피의 생리적 효과

2.2.1.1 혈압, 통증 조절

고일선(2005)은 혈압을 실내·외 환경, 신체 심리상태, 건강에 따라 변화하는 몸의 균형상태와 질병을 나타내주는 근거라고 주장하였다. Tyler는 통증은 아픔을 느끼는 증세로 우리 몸에 자극이 가해질 때 느끼는 불쾌감의 감정적 경험이라고 하였다.

이원진(2016)은 아로마테라피의 혈압, 통증조절 효과 임상연구에서 폐 절제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4일 동안 2%의 로먼 캐모마일과 스위트 오렌지를 1:2의 비율로 혼합하여 10분 동안 향흡입을 적용한 실험결과 수면의 질, 수축기 혈압,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함으로써 아로마테라피가 혈압 및 통증조절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2.2.1.2 비만 조절효과

김혜균 등(2014)은 비만을 에너지 과잉으로 인한 체중증가라고 하였으며, 에너지섭취는 외부환경(기후, 온도, 음식물의 열 등)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고 하였다. 대한비만학회(1995)의 비만기준은 체질지수(BMI; Body Mass Index)가 23% 이상을 과체중, 25%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서연(2016)은 아몬드오일에 2% 라벤더, 네롤리, 그레이프프루트 에센셜오일을 블렌딩하여 과체중 중년여성에게 3일간 총 6회 향 흡입요법 실시결과, 과체중 중년여성의 식사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을 관찰함으로써 아로마테라피의 비만조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2.2.1.3 수면 조절효과

수면은 주위환경에 대한 반응과 환경에 대한 상호작용이 감소한 상태로서 수면 시에는 우리 몸의 감각과 반사기능이 저하한다. Associationn AP(2013)에 따르면 우리는 전체수면의 75%는 NREM(non-rapid eye movement)으로 보내고, 25%는 REM(rapid eye movement)으로 보낸다. NREM > REM > NREM > REM의 주기적 반복은 하룻밤 동안 4~5회 정도이다. 우리는 수면 동안 뇌 혈류가 감소하고, 체온조절과 근육계의 피로가 감소되어 정신적,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회복(Lee Sj, Park CS, Kim Bj, Lee CS, Cha B, Lee D, 2015)되지만, 불면증이 생기면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병, 우울증, 대사성 증후군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로마테라피는 최근, 수면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보완 대체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미은(2017)은 아로마테라피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마사지법이 흡입법보다 효과적이고, 라벤더를 포함한 여러 가지 오일을 블렌딩한 오일을 사용하면 수면의 질이 더욱 향상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아로마테라피의 수면 긍정효과를 인정한 바 있다.

2.2.1.4 피부관리 효과

사람들은 천연재료를 친환경적이며 인공제품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있는 아로마에센셜오일은 웰빙감을 강화한 피부관리 방법이 될 수 있다.

Schnaubelt 및 홍지유(2017)는 아로마에센셜오일의 성분들은 우리 피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피부에 탄력을 증가시키고, 보습효과를 주며, 피부 유연성을 높여주고, 피부재생과 회복을 돕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환부 살균 작용, 염증완화작용, 피지분비 정상화, 모세혈관과 림프순환을 통한 피지분비 조절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지영(2018)은 여드름 피부의 6가지 변인(모공, 홍반, 멜라닌 지수, KAGS, 유분량, 미생물 수)에 대한 아로마오일이 치료효과 연구에서 아로마오일이 여드름피부개선효과가 있으며, 모공을 개선하는 효과를 입증했다고 주장하는 등 아로마에센셜오일이 피부관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2.2.2 아로마테라피의 심리적 효과

2.2.2.1 스트레스 조절효과

스트레스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로서 환경자극이 개인적응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때 생긴다. 적은 양의 적절한 스트레스는 동기유발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우리를 질병에 빠뜨릴 수 있다. 스트레스가 적절히 해소되지 않으면 혈당이 불안정하게 되고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식욕 증가 등 이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만성적 스트레스는 당뇨병, 비만, 고혈압 등 신체적 질환, 우울증, 불안, 집중력 장애 등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Price L, 2007).

강현미(2018)는 그의 스트레스 반응효과 메타분석연구에서 라벤더오일을 이용한 아로마오일 연구가 가장 많고, 캐리어오일 중 호호바오일 연구가 많다고 하면서, 아로마요법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반응사례에 대한 아로마요법이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신체적 반응보다 정신적 심리적 반응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2.2.2.2 우울 조절효과

Battle(1978)은 우울이란 뇌의 생화학적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절망감, 불안전, 우울한 기분, 슬픔과 같은 증상이며,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하거나 불완전한 정서상태를 말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울한 사람은 식욕을 잃거나 과식함으로써 살이 찌고 쉽게 피곤해하며, 불면증, 불감증, 성기능 장애를 느끼기도 하며(이병주, 2007), 대사증후군, 혈소판활성도, 면역반응, 자율신경계 기능,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의 기능, 관상동맥 질환 등에 이상 반응을 나타낸다(Anderson, R. J, 2001). 심각한 우울증은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의 기능장애, 변연계의 손상과 도파민(dopamine), 세로토닌(serotonin) 신경전달 체계의 조절장애를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다(大熊輝雄, 2007).

노기옥(2017)은 비교적 높은 불안과 우울증을 보이는 부인암 환자를 대상으로 아로마마사지를 적용한 결과 불안과 우울정도를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고 보고함으로써, 우울증세에도 아로마테라피가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다.

2.2.2.3 불안조절효과

불안은 특수환경 적응을 위한 불편한 내면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반응으로서 생리적 각성과 여러 가지 유형의 행위로 나타내지는 감정이다. Murtagh, J는 사람들은 일생동안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나 불운한 일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여 5~10%의 사람들이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한다.

복부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아로마 흡입요법, 즉 프랑킨센스와 페티그레인 오일을 1:1로 혼합하여 수술 전날 오후 8~9시경과 수술 당일 수술실로 가기 30분전에 5분간 흡입시킨 불안해소효과 연구결과, 긍정적인 것으로

(이명서, 유언나, 박경숙, 2008) 나타남으로써 아로마테라피의 불안조절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2.2.2.4 피로조절효과

피로(fatigue)는 정신적 육체적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심신기능의 저하상태로서 일시적 또는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는 심리적 육체적 과부하 상태이다.

조은진(2013)은 피로가 나타나는 방식은 중추피로와 말초피로, 급성피로와 만성피로, 정신피로와 육체피로 등이며, 기능저하가 심한 근피로, 신경피로, 심장피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한 피로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활력 상실, 능력과 욕구저하, 인내력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박시나(2011)는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근무가 끝난 오전에 수면을 취하기 전레몬, 라벤더, 샌달우드 아로마 오일을 향 요법으로 적용한 결과 수면증가와 피로회복에 뚜렷한 효과가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아로마테라피의 피로조절효과를 증명하였다.

2.2.3 아로마테라피의 대뇌기능 강화효과

2.2.3.1 뇌파

뇌파(EEG)는 대뇌피질에 있는 수많은 뉴런들의 수상돌기 시냅스가 주기적 진동 활동이다. 이 뇌의 자율적인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통해 두뇌의 기능과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데(윤중수, 2010) 뇌파리듬은 주파수 범위에 따라 구분된다. delta파(0.5-3Hz)는 느리고 진폭이 큰 리듬으로 수면과 연관이 있고 theta파(4-7Hz)는 졸립거나 수면, 또는 마취상태와 같이 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현한다. alpha파(8-13Hz)는 조용히 각성되어 있는 상태와 연관이 있고, 편안한 상태에 나타난다. beta파(14-30Hz), gamma파(30Hz이상)는 빠르고 활성화된 피질상태로 불안이나 복잡한 정보처리 할 때 주로 출현한다(강인숙, 2017).

아로마오일이 인체와 뇌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코를 통해 흡입된 향 입자는 후각 수용체를 자극하고, 그 자극이 대뇌의 변연계로 전달되어 자율 신경계를 자극함으로써 심박동수, 혈압, 호흡, 뇌파 등의 변화를 초래한다 (Han, S. H., Hur, M. H., & Kang, J. Y., 2002)는 연구결과가 있어서 아로마 오일의 뇌파 영향력을 시사하고 있다.

2.2.3.2 인지능력

인지(cognition)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과정으로서 인지강도와 인지속도가 강하고 빠를수록 인지능력이 좋다고 평가한다. Yea, M.K., Shin, S.H. (2003)의 라벤더 아로마에센셜오일 작용연구는 후각 관련 뇌의 영역에 활성화를 나타냈고, 후 측두엽, 청각 피질, 내측 슬상체 등의 청각-언어 관련영역에서도 활성화 상태를 보였으며, 뇌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김미란(2018)은 클라리세이지오일 향 흡입이 자발성 뇌출혈 환자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연구에서 자발성 뇌출혈 환자에게 클라리세이지오일 향 흡입을 적용하여 간이정신상태 숫자잇기(TMT-A), 판별검사(MMSE), 전반적 퇴화척도(GDS), 숫자암기(DSF), 숫자역순암기(DSB)검사를 통하여 인지기능이 높아졌다고 주장함으로써 아로마오일의 인지능력 향상을 검증하였다.

2.2.3.3 집중력

집중력은 외부자극 중에서 필요한 정보, 특정한 정보만을 분명하게 받아들여 인식하는 반응, 즉 정신집중의 힘이다. 높은 집중력은 학업성취도나 업무효과, 효율성에 중요하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토시아키모, 2003).

아로마오일을 동양의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제이(Mojay,1997)와 최윤정(2006) 연구에 의하면 아로마오일은 심장과 신경을 강장하여 뇌혈류의 흐름을 증가시켜 심신이 쇠약한 사람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 레몬 에센셜오일은 무겁고 충혈된 머리에 집중력을 높여주게 되어 머리를 맑게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페퍼민트(peppermint)에센셜 오일은 학습에 효과적인 자극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은실(2015)은 레몬과 로즈마리 오일을 4:1비율로 블렌딩 한 에센셜 오일의 흡입은 뇌파에 작용하여 집중력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2.2.2.4 기억력

기억이란 뇌 속에 저장된 정보를 필요한 때에 의식세계로 꺼내서 사용하는 능력이다(Barrett, K.E., Barman, S.M., 2013).

박현숙(2007)은 60세 이상 80세까지 노인을 대상으로한 Begamot, Lavender, Rosemary, Black pepper 오일을 1:1:1:1 혼합오일, 3%를 Sweet almond와 10% jojoba를 혼합한 50ml 개리어오일에 섞은 것을 사용한 손 마사지 결과, 뇌의 활동기억에 관계하는 띠이랑 부위에서 베타파가 활성화된 결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아로마오일의 기억력 관여효과를 증명하였다.

2.3 아로마테라피 인식의 영향요소

2.3.1 사전지식(Prior knowledge)

사전지식은 배경지식, 선행지식 등으로 사용되며, 특정한 대상에 대한 선행 경험과 지식을 일컫는다.

정미희(2002)는 소비자의 사전지식은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의 객관적 정보와 자기 보고적 경험이라고 하여 소비자행동 관련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변수의 하나이며, 소비자의 제품선택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현준(2011)은 사전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소비자는 잘 개발된 지식구조를 갖고 있고, 이해능력이 빨라서 쉽게 정보를 조직화하게 되며, 적은 사전지식을 가진 소비자는 제품속성에 대해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권한나, 2010)고 하였다. 사전지식은 특정 사물

과 대상에 대해 친숙성(Familiarity)과 전문성(Expertise)을 높이게 되어 특정 사물과 대상에 대한 접촉가능성을 용이하게 해준다.

따라서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사전지식은 아로마테라피의 수용과 적용을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2.3.2 이용경험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이영수(2013), 조수진(2014), 정은정(2011), 정유정(2011), 홍지유(2017), 이화진(2013)이 자신들의 연구에 사용한 아로마테라피 이용경험 요인을 정리하면 [표 2-3] 과 같다.

[표 2-3] 아로마테라피 이용경험의 요소

항목	세부사항	연구자
구매경로	1.인터넷 2. 아로마 전문샵(백화점포함) 3. 피부 관리 샵 4. 선물로 5. 개인공방	이영수 (2013) 정은정 (2011)
사용방법	1.마시지법 2. 수용법(목욕법, 족욕법, 좌욕) 3. 흡입법 4. 복요법 5. 발향법	조수진 (2014)
가격	1. 매우 싸다 2. 싸다 3. 보통이다 4. 비싸다 5. 매우 비싸다.	정은정 (2011)
아로마오일 종류	1. 라벤더 2. 카모마일 저먼 3. 유칼립투스 4. 로즈마리 5. 제라늄 6. 페퍼민트 7. 스위트 오렌지 8. 자스민 9. 티트리 10. 사이프러스 11. 일랑일랑 12. 버가못 14. 네눌리 15. 레몬스라스 16. 샌달우드	조수진 (2014) 장유정 (2018) 정은정 (2011)

	17. 마조람 18. 프랭킨센스 19. 그레이프푸룻 20. 클라리세이지 21. 싸이프리스 23. 시더우드 24. 로즈 25. 생강	
효과	1. 문제성 있는 피부의 관리(여드름, 건조피부, 노화피부) 2. 비만관리(슬리밍 케어) 3.근육이완(통증) 4. 스트레스완화 (심리적, 정신적 안정)	홍지유 (2017)
부작용경험	1. 메스꺼움, 구토증상 2. 피부발적, 발진 3. 색소침착 4. 피로감 5. 두통, 어지럼증 6. 출혈, 나른함 7. 긴장, 예민해짐 8. 피부건조, 가려움증 9. 가슴 답답함	정은정 (2011) 이화진 (2013)
사용이유	1. 가격 2. 품질의 신뢰도 3. 구입의 편리성 4. 아로마의 향기 5. 나에게 맞는 효능 6. 주위사람들과 판매원에 추천	장유정 (2018)
시행횟수	1. 매일 2. 주3회 이상 3. 주1회 4. 월 2회 5. 월 1회 이하	이영수 (2013) 홍지유 (2017)
아로마형태	1. 아로마오일 2. 아로마 화장품 3. 아로마 방향용품	장유정 (2018)
아로마 교육	1.제품회사 2. 전문교육기관 3. 선배, 동료 관리자 4. 매스미디어(인터넷, 방송)	김정희 (2019)
교육내용	1. 에센셜오일의 효능에 대한 교육 2. 향기를 블렌딩에 관한 교육 3. 에센셜 오일의 안전성에 관련한 교육 4. 에센셜오일의 화학적 구조 관련 교육 5. 아로마테마피 자격증 과정 교육	홍지유 (2017)
만족도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엄정주 (2009) 남석훈 (2016)

2.4 한국과 중국의 아로마테라피

세계의 아로마테라피를 크게 나누면 영국, 프랑스, 독일 아로마테라피 3가지다. 영국은 건강관리에 가까운 아로마테라피이고, 프랑스는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춘 아로마테라피이며, 독일은 별도의 아로마테라피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전통적인 허브요법과 음식치료로 자연요법의 임상치료와 결합된다고 할 수 있다(克莉希·怀伍德, 牛尔译, 2010).

한국의 아로마테라피는 대체요법, 의학, 화장품산업 등 넓은 분야에서 연구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여러 전문기관과 단체에서 전문의료인과 피부미용전문가, 허브 전문가 등 아로마테라피 전문가를 양성해내고 있다.

김종숙(2007)은 아로마오일의 투여량, 확산도, 시간당 필요량, 공간 면적당 필요량 등, 아로마테라피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로마오일의 표준화작업을 선행하면, 21세기에는 아로마테라피를 의약, 산업, 문화, 생활분야에 폭넓게 활용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기원전 약 4,000년경 약초를 침술과 함께 사용하였으며, 향을 활용한 기록이 있다. 또 신농(神農)이 백초를 맛보았다는 고사가 있고, 당송 시대에는 민간에서 방향제품을 널리 사용하였다. 아로마 오일은 수많은 응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천연방향요법, 뷰티스킨케어, 향수와 같은 분야에서 쓰일 수 있고, 농축산분야, 의류분야에 까지도 충분한 활용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는 아로마테라피를 주로 미용분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의학분야에서는 소수의 의사만이 보조치료 용도로 사용하고(宋晓雷, 2012) 있다.

또한 중국의 현재 화장품 시장은 800억 원 규모에 이르고 있으나, 아로마 소비는 이중 1%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써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이처럼 중국의 아로마오일 시장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国内外香化信息, 2015)로서 한국의 아로마시장을 고려하면 상당한 발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2.5 지속 이용의도

2.5.1 지속 이용의도의 정의 및 개념

McDougall, H. G.& Levesque, T. (2000)는 지속이용의도(Continuous Usage Intention)란 특정 서비스나 제품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나 제품을 다시 이용하고 싶어하는 정도, 또는 권장정도라고 하였다.

황은희(2017)는 지속이용의도를 소비자가 어떤 태도를 형성한 후, 미래에 다시 동일한 행동을 나타내게 될 주관적인 의지와 신념의 표현이며, 기업과 소비자의 장기적 관계유지를 위한 핵심적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명광주(2006)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궁극의 목표는 소비자 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소비를 자극하고, 좋은 감정을 줌으로써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하고 구매의도를 반복적으로 자극해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비자의 지속이용의도는 미래의 소비자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증표로서 역할하게 된다. Dorsch et al(2000) 역시 명광주와 마찬가지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감은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 지속 의도를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지속사용의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고객충성도(customer loyalty), 고객관계 유지(customer retention)가 필요하다(이상건, 김주향, 2011). 아로마테라피의 지속이용의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아로마테라피 효과를 높이고, 서비스 만족감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Bhattacharjee(2001)가 주장한 재 구매의도 과정을 보면 [표 2-4] 와 같다.

[표 2-4] 재 구매의도 과정

단 계	내용
1단계	최종 사용자(end-users)가 특정한 정보기술의 초기기대 및 기대된 유용성 형성.
2단계	최종사용자가 정보기술을 사용 후 지각된 유용성 형성.
3단계	최종사용자가 정보기술에 대한 만족도 평가.
4단계	최종사용자가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이용의도 형성.

2.5.2 지속이용의도 관련 선행연구

설나래(2018)는 헤어 시술상품 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이용용이성과 상호작용성, 경제성, 오락성, 안정성은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며 만족도는 지속사용의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SU QIANYUAN(2018)도 중국여성 소비자의 화장품 소비에서 소비체험, 소비체험가치가 지속적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화장품 소비에서 감각체험, 행동체험, 이성체험, 감성체험, 관계체험은 모두 지속적인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안희영(2019) 역시 코스메슈티컬의 품질이 이용자의 지각된 가치와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 후 느끼는 안정감, 만족감, 사회적 평판, 심리적 가치가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5] 과 같다.

[표 2-5] 지속이용의도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요약
안희영 (2019)	코스메슈티컬의 품질 ,이용자의 지각된 가치와 지속적 사용의도
설나래 (2018)	헤어 시술상품 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
SU QIANYUAN (2018)	중국 여성 소비자의 화장품 소비체험, 소비체험가치의 지속적 구매의도

Ⅲ. 연구설계

3.1 연구가설 및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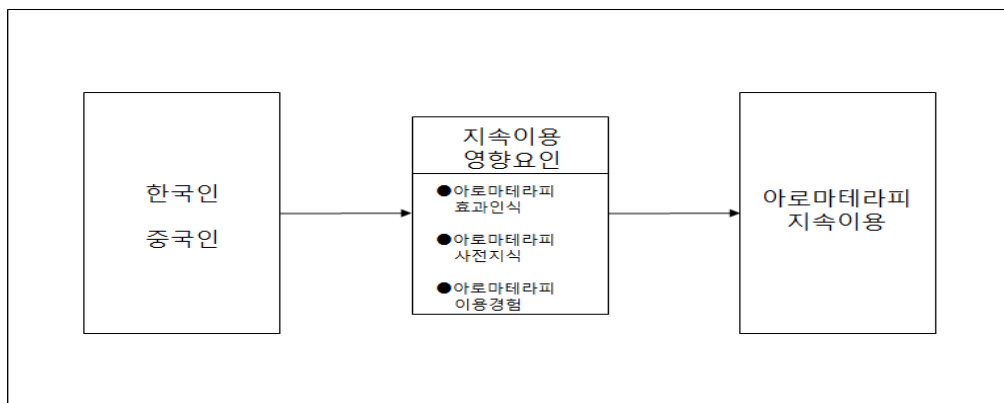
본 연구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아로테라피의 효과에 대한 인식차이가 어떠한가, 아로마테라피 이용자의 만족도가 지속이용의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3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한국인과 중국인의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한국인과 중국인의 이로마테라피 사전지식과 이용경험에 따라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한국인과 중국인의 이로마테라피 효과인식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가 커질 것이다.

이상의 연구가설을 도식화하여 아로마테라피의 사전지식, 이용경험,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 만족도, 지속이용의도에 대한 연구를 위한 연구 모형은 아래 [그림 3-1] 와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3.2 연구참가자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가자는 서울과 상해지역에서 사는 남녀 한국인과 중국인 각각 218명, 214명 총 433명이다. 한국에서의 설문조사는 오프라인 설문지와 naver 오피스를 이용하였고, 중국에서는 ‘问卷网’ 웹사이트(<https://www.wenjuan.com>)를 이용 wechat으로 진행하였다.

3.3 설문의 구성

본 연구가 사용한 설문은 김정희(2019), 안희영(2019), 장유정(2018), 설나래(2018) SU QIANYUAN(2018), 홍지유(2017), 남석훈(2016), 조수진(2014), 이영수(2013), 정은정(2011), 박해순(2011), 임언주(2009)의 연구가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설문구성은 크게 5가지 요인, 즉 아로마테라피 사전인식 관련 28개 문항, 아로마테라피 이용경험 14개 문항, 만족도 6개 문항, 지속이용의도 5개 문항, 일반적 특성 6개 문항 등 총 5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3-1] 과 같다.

[표 3-1] 설문지 구성

조사 항목	내 용	문항 수	문항출처
일반적 특성	연령 거주지역 성별 학력 직급 월평균소득	6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아로마오일 추출부위 캐리어오일 희석 이용 피부점막 자극 주의 아로마테라피 오일 지역 따라 효능특성 고혈압, 심장질환, 인신 피해야하는 상황 호흡경로 보관방법 아로마블렌딩 심리적효과 인식 생체적효과 인식 대뇌기능 강화 인식 부작용 인식	28	장유정(2018) 이희정(2014) 홍지유(2017) 김정희(2019)
아로마테라피 이용경험	이용경험유무 이용경험 없는 이유 앞으로 이용유무 알게 된 경로 이용 총시간 이용 형태 이용횟수 이용방법 이용목적 가격 이용 아로마테라피 오일 종류 선호도 교육경험 원하는 교육내용	14	이영수(2013) 장유정(2018) 조수진(2014) 남석훈(2016)
아로마테라피 만족도	가격 향 품질 효능 편리성 안전성	6	정은정(2011) 임언주(2009) 박해순(2011)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	제품의 권유 계속 이용유무 이용 변도 늘림 유무 투자비용 늘림 유무 약, 주사, 기기 등 같은 효과가 있는 아로마테라피 계속이용의향	5	이영수(2013) SU QIANYUAN (2018) 안희영(2019) 박해순(2011) 나래(2018)
합 계		59	

3.4 조사

본 연구의 조사는 2019년 12월 1일 부터 12월 7일까지 1주일 간 실시하였고, 조사의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3.5 분석

본 연구는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 즉 한국 218부와 중국 214부, 총 433부를 회수한 후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한국 16부와 중국 16부, 총 32부의 설문을 제외한 40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WIN 통계프로그램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 s α 를 사용하였다.

둘째, 한국과 중국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이용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한국과 중국에 따른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 사전지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이용경험이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에 미치는 영향,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 아로마테라피 만족도가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조사결과

4.1 신뢰도 검증

[표 4-1] 영역의 신뢰성 검증

		Alpha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953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	아로마테라피 생리적 효과인식	.914
	아로마테라피 심리적 효과인식	.950
	아로마테라피 대뇌기능강화 인식	.938
	아로마테라피 부작용 인식	.943
아로마테라피 만족도		.899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		.900

설문항목이 신뢰성을 살펴보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알파(Alpha)계수가 0.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용한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대부분 0.6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설문항목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4.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표 4-2] 국적에 따른 일반적 사항

		한국인	중국인	전체	$\chi^2(p)$
거주지역	한국	202	0	218	314.505*** (.000)
		100.0%	.0%	52.3%	
	중국	0	215	199	
		.0%	100.0%	47.7%	
성별	남성	22	31	53	1.168 (.280)
		10.9%	14.4%	12.7%	
	여성	180	184	364	
		89.1%	85.6%	87.3%	
연령	20대 미만	1	2	3	67.859*** (.000)
		.5%	.9%	.7%	
	20대	62	117	179	
		30.7%	54.4%	42.9%	
	30대	41	69	110	
		20.3%	32.1%	26.4%	
	40대	53	21	74	
		26.2%	9.8%	17.7%	
	50대	42	6	48	
		20.8%	2.8%	11.5%	
	60대	3	0	3	
		1.5%	.0%	.7%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1	82	123	48.070*** (.000)
		20.3%	38.1%	29.5%	
	101-200만원	34	66	100	
		16.8%	30.7%	24.0%	
	201-300만원	56	18	74	
		27.7%	8.4%	17.7%	
	301-400만원	25	17	42	
		12.4%	7.9%	10.1%	
	401-500만원	16	8	24	
		7.9%	3.7%	5.8%	
	501-600만원	5	5	10	
		2.5%	2.3%	2.4%	
	601만원 이상	25	19	44	
		12.4%	8.8%	10.6%	

		한국인	중국인	전체	$\chi^2(p)$
학력	고졸 미만	1	32	33	132.467*** (.000)
		.5%	14.9%	7.9%	
	고졸	22	39	61	
		10.9%	18.1%	14.6%	
	전문대졸	23	58	81	
		11.4%	27.0%	19.4%	
	4년제 대학 재학	32	59	91	
		15.8%	27.4%	21.8%	
직업	4년제 대학 졸	48	24	72	43.527*** (.000)
		23.8%	11.2%	17.3%	
	대학원 재학	45	3	48	
		22.3%	1.4%	11.5%	
	대학원 졸	31	0	31	
		15.3%	.0%	7.4%	
	전문직	61	21	82	
		30.2%	9.8%	19.7%	
전체	사무직	24	21	45	
		11.9%	9.8%	10.8%	
	서비스직 및 판매직	34	72	106	
		16.8%	33.5%	25.4%	
	자영업	39	36	75	
		19.3%	16.7%	18.0%	
	관리직	10	10	20	
		5.0%	4.7%	4.8%	
전체	기술직	14	14	28	
		6.9%	6.5%	6.7%	
	학생	7	25	32	
		3.5%	11.6%	7.7%	
	주부	13	16	29	
		6.4%	7.4%	7.0%	
	전체	202	215	417	
		100.0%	100.0%	100.0%	

*** $p < .001$

[표 4-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거주지역은 한국이 52.3%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중국은 47.7%로 나타났으며 국적에 따라서는 한국인은 한국이 100.0%, 중국인은 중국이 100.0%로 나타났다.

($\chi^2=314.505$, $p<.001$).

성별은 여성이 87.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남성은 12.7%로 나타났으며 국적에 따라서는 한국인은 여성이 89.1%, 남성이 10.9%, 중국인은 여성이 85.6%, 남성이 14.4%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가 42.9%로 과반수 가까이 되었고 30대가 26.4%, 40대가 17.7%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적에 따라서는 한국인은 20대가 30.7%, 40대가 26.2%, 50대가 20.8% 순으로 나타났고 중국인은 20대가 54.4%, 30대가 32.1%, 40대가 9.8% 순으로 나타났다.($\chi^2=67.859$, $p<.001$)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200만원이 24.0%, 201-300만원이 17.7%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적에 따라서는 한국인은 201-300만원이 27.7%, 100만원 미만이 20.3%, 101-200만원이 16.8% 순으로 나타났고 중국인은 100만원 미만이 38.1%, 101-200만원이 30.7%, 601만원 이상이 8.8% 순으로 나타났다.($\chi^2=48.070$, $p<.001$)

학력은 4년제 대학 재학이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문대졸이 19.4%, 4년제 대학 졸이 17.3%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적에 따라서는 한국인은 4년제 대학 졸이 23.8%, 대학원 재학이 22.3%, 4년제 대학 재학이 15.8% 순으로 나타났고 중국인은 4년제 대학 재학이 27.4%, 전문대졸이 27.0%, 고졸이 18.1% 순으로 나타났다.($\chi^2=132.467$, $p<.001$)

직업은 서비스직 및 판매직이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직이 19.7%, 자영업이 18.0%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적에 따라서는 한국인은 전문직이 30.2%, 자영업이 19.3%, 서비스직 및 판매직이 16.8% 순으로 나타났고 중국인은 서비스직 및 판매직이 33.5%, 자영업이 16.7%, 학생이 11.6% 순으로 나타났다.($\chi^2=43.527$, $p<.001$).

4.3 연구문제 분석

4.3.1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 차이

4.3.1.1 아로마테라피 생리적 효과인식

[표 4-3] 국적에 따른 아로마테라피 생리적 효과인식 차이 검증

		N	M	SD	t	p
혈압, 통증 조절	한국인	127	4.63	1.708	-1.936	.054
	중국인	70	5.11	1.629		
비만 조절	한국인	123	4.16	1.767	-4.300***	.000
	중국인	70	5.26	1.576		
수면 조절	한국인	126	5.19	1.441	-4.528***	.000
	중국인	70	6.03	1.116		
피부계 조절	한국인	126	4.88	1.573	-2.343*	.020
	중국인	70	5.41	1.440		

* $p < .05$, *** $p < .001$

[표 4-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로마테라피 생리적 효과인식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비만조절($t = -4.300$, $p < .001$), 수면조절($t = -4.528$, $p < .001$), 피부계 조절($t = -2.343$,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한국인보다 중국인의 효과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인보다 중국인의 경우 아로마테라피 생리적 효과인식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3.1.2 아로마테라피 심리적 효과인식

[표 4-4] 국적에 따른 아로마테라피 심리적 효과인식 차이 검증

		N	M	SD	t	p
스트레스 조절	한국인	126	5.41	1.364	-1.663	.098
	중국인	70	5.74	1.270		
우울	한국인	126	5.10	1.436	-2.144*	.033
	중국인	70	5.54	1.259		
불안 조절	한국인	125	5.02	1.448	-3.756** *	.000
	중국인	70	5.77	1.144		
피로	한국인	126	5.21	1.395	-3.305** *	.001
	중국인	70	5.81	1.107		

* $p < .05$, ** $p < .001$

[표 4-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로마테라피 심리적 효과인식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우울($t = -2.144$, $p < .05$), 불안 조절($t = -3.756$, $p < .001$), 피로($t = -3.305$,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한국인보다 중국인의 효과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인보다 중국인의 경우 아로마테라피 심리적 효과인식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4.3.1.3 아로마테라피 대뇌기능강화 인식

[표 4-5] 국적에 따른 아로마테라피 대뇌기능강화 인식 차이 검증

		N	M	SD	t	p
뇌파변화	한국인	128	4.44	1.635	-3.359** *	.001
	중국인	70	5.23	1.486		
인지기능	한국인	126	4.25	1.657	-2.907**	.004
	중국인	70	4.96	1.610		
집중력	한국인	128	4.83	1.538	-.511	.610
	중국인	70	4.94	1.463		
기억력	한국인	126	4.52	1.558	-2.289*	.023
	중국인	70	5.07	1.747		

* $p < .05$, ** $p < .01$, *** $p < .001$

[표 4-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로마테라피 대뇌기능강화 인식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뇌파변화($t = -3.359$, $p < .001$), 인지기능($t = -2.907$, $p < .01$), 기억력($t = -2.289$,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한국인보다 중국인의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인보다 중국인의 경우 아로마테라피 대뇌기능강화 인식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3.1.4 아로마테라피 부작용 인식

[표 4-6] 국적에 따른 아로마테라피 부작용 인식 차이 검증

		N	M	SD	t	p
피부 발적, 발진, 건조, 가려움증	한국인	128	4.43	1.644	-3.158**	.002
	중국인	70	5.17	1.454		
두통, 어지럼증	한국인	124	4.47	1.655	-1.728	.086
	중국인	70	4.87	1.382		
가슴 답답함	한국인	127	4.33	1.695	-1.359	.176
	중국인	70	4.66	1.453		
긴장, 예민해짐	한국인	127	4.34	1.634	-.549	.584
	중국인	70	4.47	1.613		
메스꺼움, 구토증상	한국인	126	4.15	1.645	-.842	.401
	중국인	70	4.36	1.642		

** $p < .01$

[표 4-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로마테라피 부작용인식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피부 발적, 발진, 건조, 가려움증($t = -3.158$, $p <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인보다 중국인의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두통, 어지럼증, 가슴답답함, 긴장, 예민해짐, 메스꺼움, 구토증상에 대해서는 국적별로 비슷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3.2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및 이용경험은 효과인식에 어떠한 영향

4.3.2.1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차이

[표 4-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아로마테라피 오일은 식물의 줄기, 뿌리, 꽃, 열매 등에서 추출 한다’(t=-2.704, $p<.01$), ‘아로마테라피 오일은 피부나 호흡을 통해 흡수된다’(t=-2.791, $p<.01$), ‘아로마테라피 오일은 생산지역 따라서 화학 성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효능에 차이가 있다’(t=-3.771, $p<.001$), ‘아로마 테라피 오일은 순수 100% 고농축 오일이므로 캐리어 오일에 희석해서 사용한다’(t=-3.583, $p<.001$), ‘임신이나 고혈압, 심장질환, 우울증 등에 따라 아로마테라피 오일을 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t=-2.632, $p<.01$), ‘아로마 테라피 오일은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므로 사용 시 주의를 필요로 한다’(t=-2.858, $p<.01$), ‘아로마테라피 오일은 햇빛, 열, 산소, 습기 등에 약하므로 보관 시 주의해야 한다’(t=-4.436,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한국인보다 중국인의 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국적에 따른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차이 검증

		N	M	SD	t	p
아로마테라피 오일은 식물의 줄기, 뿌리, 꽃, 열매 등에서 추출 한다	한국인	128	4.82	1.629	-2.70 ₄ **	.007
	중국인	70	5.50	1.800		
아로마테라피 오일은 피부나 호흡을 통해 흡수된다	한국인	128	5.16	1.520	-2.79 ₁ **	.006
	중국인	70	5.77	1.353		
아로마테라피 오일은 생산지역 따라서 화학 성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효능에 차이가 있다	한국인	128	4.63	1.587	-3.77 ₁ ***	.000
	중국인	70	5.50	1.511		
아로마테라피 오일은 순수 100% 고농축 오일이므로 캐리어 오일에 희석해서 사용한다	한국인	128	4.87	1.785	-3.58 ₃ ***	.000
	중국인	70	5.70	1.428		
임신이나 고혈압, 심장질환, 우울증 등에 따라 아로마 테라피 오일을 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인	127	4.94	1.763	-2.63 ₂ **	.009
	중국인	70	5.59	1.440		
아로마테라피 오일은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므로 사용 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한국인	128	4.80	1.646	-2.85 ₈ **	.005
	중국인	70	5.49	1.520		
몇 가지 아로마테라피 오일을 블렌딩하여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한국인	126	4.86	1.662	-1.90 ₅	.058
	중국인	70	5.31	1.509		
아로마테라피 오일은 햇빛, 열, 산소, 습기 등에 약하므로 보관 시 주의해야 한다	한국인	126	4.97	1.716	-4.43 ₆ ***	.000
	중국인	70	5.90	1.206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처리 ** $p < .01$, *** $p < .001$

4.3.2.2 아로마테라피 이용경험 차이

[표 4-8] 국적에 따른 아로마테라피 이용경험

		한국인	중국인	전체	$\chi^2(p)$
사용해본 적이 있는지 여부	예	130	70	200	42.193*** (.000)
		64.4%	32.6%	48.0%	
	아니오	72	145	217	
		35.6%	67.4%	52.0%	
이용하지 않은 이유 *사용해본 적이 없는 경우만 응답	관심은 있지만 접할 기회가 없어서	27	2	29	63.001*** (.000)
		38.6%	1.4%	13.5%	
	구입경로가 쉽지 않아서	2	1	3	
		2.9%	.7%	1.4%	
	관심이 없어서	21	51	72	
		30.0%	35.2%	33.5%	
	효과가 없어서	18	89	107	
		25.7%	61.4%	49.8%	
	가격이 비싸서	2	2	4	
		2.9%	1.4%	1.9%	
	소계	70	145	215	
		100.0%	100.0%	100.0%	
이용계획이 있는지 여부 *사용해본 적이 없는 경우만 응답	있다	25	41	66	12.000** (.002)
		35.7%	28.3%	30.7%	
	없다	12	7	19	
		17.1%	4.8%	8.8%	
	잘 모르겠다	33	97	130	
		47.1%	66.9%	60.5%	
	소계	70	145	215	
		100.0%	100.0%	100.0%	
전체		202	215	417	
		100.0%	100.0%	100.0%	

** $p < .01$, *** $p < .001$

[표 4-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로마테라피 이용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사용해본 적이 있는지 여부는 없다는 응답이 52.0%로 과반수이상이었고 있다는 응답은 48.0%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에 따라서는 한국인은 아로마테라피를 사용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64.4%로 중국인의 32.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chi^2=42.193$, $p<.001$).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효과가 없어서가 49.8%로 과반수 가까이 되었고 관심이 없어서가 33.5%, 관심은 있지만 접할 기회가 없어서가 13.5%, 가격이 비싸서가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에 따라서는 한국인은 관심은 있지만 접할 기회가 없어서가 38.6%로 중국인의 1.4%보다 더 높음을 보였고 반면에 중국인은 효과가 없어서가 61.4%로 한국인의 25.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chi^2=63.001$, $p<.001$)

이용계획이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0.5%로 대부분이었고 있다 30.7%, 없다 8.8%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에 따라서는 한국인은 아로마테라피 이용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35.7%로 중국인의 28.3%보다 더 높음을 보였고 반면에 중국인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6.9%로 한국인의 47.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chi^2=12.000$, $p<.01$)

4.3.2.3 아로마테라피 이용경향

[표 4-9] 국적에 따른 아로마테라피 이용경향(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만)

		한국인	중국인	전체	$\chi^2(p)$
알게 된 경로	피부관리실/병원	46	44	90	16.161** (.006)
		35.4%	62.9%	45.0%	
	매스미디어	16	2	18	
		12.3%	2.9%	9.0%	
	아로마테라피 교육프로그램	33	13	46	
		25.4%	18.6%	23.0%	
	아로마 전문샵	18	4	22	
		13.8%	5.7%	11.0%	
이용하는 이유	가족, 친구, 동료	12	5	17	7.281 (.296)
		9.2%	7.1%	8.5%	
	기타	5	2	7	
		3.8%	2.9%	3.5%	
	문제성 피부 관리	20	11	31	
		15.4%	15.7%	15.5%	
	신체증상 완화	5	4	9	
		3.8%	5.7%	4.5%	
이용한 총 기간	스트레스 완화	60	23	83	4.682 (.456)
		46.2%	32.9%	41.5%	
	근육이완, 통증 완화	35	22	57	
		26.9%	31.4%	28.5%	
	비만관리	3	4	7	
		2.3%	5.7%	3.5%	
	공기 정화	3	5	8	
		2.3%	7.1%	4.0%	
	기타	4	1	5	
		3.1%	1.4%	2.5%	
	1개월 미만	29	12	41	
		22.3%	17.1%	20.5%	
	2-6개월 미만	25	13	38	
		19.2%	18.6%	19.0%	
	6개월-1년 미만	23	7	30	
		17.7%	10.0%	15.0%	
	1-3년 미만	15	13	28	
		11.5%	18.6%	14.0%	
	3-5년 미만	11	8	19	
		8.5%	11.4%	9.5%	
	5년 이상	27	17	44	
		20.8%	24.3%	22.0%	

		한국인	중국인	전체	$\chi^2(p)$
이용하고 있는 아로마테라피	아로마 오일	103	60	163	3.127 (.372)
		79.2%	85.7%	81.5%	
	아로마 화장품	13	6	19	
		10.0%	8.6%	9.5%	
	DIY 아로마용품	5	0	5	
		3.8%	.0%	2.5%	
	기타	9	4	13	
		6.9%	5.7%	6.5%	
주로 이용하는 아로마테라피 방법	마사지법	95	49	144	8.834 (.116)
		73.1%	70.0%	72.0%	
	흡입법	7	10	17	
		5.4%	14.3%	8.5%	
	습포법	6	0	6	
		4.6%	.0%	3.0%	
	방향법	17	10	27	
		13.1%	14.3%	13.5%	
아로마테라피 를 이용하는 횟수	한 달 1회 미만	54	31	85	10.560 (.061)
		41.5%	44.3%	42.5%	
	한 주 1회 미만	10	14	24	
		7.7%	20.0%	12.0%	
	주 1회	29	12	41	
		22.3%	17.1%	20.5%	
	주 2-3회	24	5	29	
		18.5%	7.1%	14.5%	
아로마테라피 가격에 대한 생각	매우 저렴하다	2	2	4	2.024 (.731)
		1.5%	2.9%	2.0%	
	저렴하다	10	3	13	
		7.7%	4.3%	6.5%	
	보통이다	74	45	119	
		56.9%	64.3%	59.5%	
	비싸다	42	19	61	
		32.3%	27.1%	30.5%	
	매우 비싸다	2	1	3	
		1.5%	1.4%	1.5%	

		한국인	중국인	전체	$\chi^2(p)$
이용하고 있는 아로마테라피 오일 종류	1종류	17	1	18	9.701* (.046)
		13.1%	1.4%	9.0%	
	2-5종류	80	46	126	
		61.5%	65.7%	63.0%	
	6-10종류	11	8	19	
		8.5%	11.4%	9.5%	
	10종류 이상	17	14	31	
		13.1%	20.0%	15.5%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5	1	6		
	3.8%	1.4%	3.0%		
전체		130	70	200	
		100.0%	100.0%	100.0%	

* $p < .05$, ** $p < .01$

[표 4-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로마테라피 이용경향에 대해 살펴보면 아로마테라피를 알게 된 경로의 경우에는 피부관리실/병원이 45.0%로 과반수 가까이 되었고 아로마테라피 교육프로그램이 23.0%, 아로마 전문샵이 11.0%, 매스미디어가 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에 따라서는 한국인은 매스미디어, 아로마테라피 교육프로그램이 각각 12.3%, 25.4%로 중국인의 2.9%, 18.6%보다 더 높음을 보였고 반면에 중국인은 피부관리실/병원이 62.9%로 한국인의 35.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chi^2=16.161$, $p < .01$)

아로마테라피를 이용하는 이유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완화가 41.5%로 과반수 가까이 되었고 근육이완, 통증 완화가 28.5%, 문제성 피부 관리가 15.5%, 신체증상 완화가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에 따라서는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스트레스 완화나 근육이완, 통증 완화를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국적과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아로마테라피를 이용한 총 기간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이 2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개월 미만이 20.5%, 2-6개월 미만이 19.0%, 6개월-1년 미만이 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에 따라서는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1개월 미만 또는 5년 이상 이용했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국적과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용하고 있는 아로마테라피의 경우에는 아로마 오일이 81.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아로마 화장품이 9.5%, DIY 아로마용품이 2.5% 순이었다. 국적에 따라서는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국적과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아로마테라피 방법의 경우에는 마사지법이 72.0%로 대부분이었고 방향법이 13.5%, 흡입법이 8.5%, 스팀법이 3.0% 등의 순이었다. 국적에 따라서는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마사지법을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국적과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아로마테라피를 이용하는 횟수의 경우에는 한 달 1회 미만이 42.5%로 과반수 가까이 되었고 주 1회가 20.5%, 주 2-3회가 14.5%, 한 주 1회 미만 12.0% 등의 순이었다. 국적에 따라서는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한 달 1회 미만 또는 주 1회 이용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국적과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아로마테라피 가격에 대한 생각의 경우에는 매우 비싸다+비싸다의 응답이 약 31%로 매우 저렴하다+저렴하다는 약 8%보다 더 높음을 보였다. 국적에 따라서는 한국인과 중국인 가격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국적과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용하고 있는 아로마테라피 오일 종류의 경우에는 2-5종류가 63.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0종류 이상이 15.5%, 5-10종류가 9.5%, 1종류가 9.0% 등의 순이었다. 국적에 따라서는 한국인은 1종류가 13.1%로 중국인의 1.4%보다 더 높음을 보였고 반면에 중국인은 10종류 이상이 20.0%로 한국인의 13.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chi^2=9.701$, $p<.05$)

4.3.2.4 아로마테라피 오일 선호도

[표 4-10] 국적에 따른 가장 선호하는 아로마테라피 오일(*복수응답)

	한국인	중국인	전체
라벤더	93	51	144
	20.0%	20.9%	20.3%
레몬	23	17	40
	4.9%	7.0%	5.6%
오렌지	19	9	28
	4.1%	3.7%	3.9%
로즈	32	34	66
	6.9%	13.9%	9.3%
클라리세이지	7	4	11
	1.5%	1.6%	1.5%
일랑일랑	38	0	38
	8.2%	.0%	5.4%
네롤리	6	14	20
	1.3%	5.7%	2.8%
자스민	34	19	53
	7.3%	7.8%	7.5%
유칼립투스	39	0	39
	8.4%	.0%	5.5%
티트리	31	15	46
	6.7%	6.1%	6.5%
카모마일	32	10	42
	6.9%	4.1%	5.9%
샌달우드	7	6	13
	1.5%	2.5%	1.8%
제라늄	10	7	17
	2.1%	2.9%	2.4%
로즈마리	29	12	41
	6.2%	4.9%	5.8%
버가못	8	8	16
	1.7%	3.3%	2.3%
페퍼민트	33	6	39
	7.1%	2.5%	5.5%
프랑킨센스	7	22	29
	1.5%	9.0%	4.1%
싸이프러스	4	2	6
	.9%	.8%	.8%
그레이프푸룻	7	6	13
	1.5%	2.5%	1.8%
로즈우드	5	2	7
	1.1%	.8%	1.0%
마조람	2	0	2
	.4%	.0%	.3%
전체	466	244	710
	100.0%	100.0%	100.0%

[표 4-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선호하는 아로마테라피 오일에 대해 살펴보면 라벤더가 20.3%로 가장 높음을 보였고 다음으로 로즈가 9.3%, 자스민이 7.5%, 티트리가 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에 따라서는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라벤더가 각각 20.0%,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 다음으로 선호하는 아로마테라피 오일은 유칼립투스 8.4%, 일랑일랑 8.2%등의 순이었고 반면에 중국인 다음으로 선호하는 아로마테라피 오일은 로스 13.9%, 프랑킨센스 9.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3.2.5 아로마테라피 교육

[표 4-11] 국적에 따른 아로마테라피 교육을 받은 장소

	한국인	중국인	전체
제품회사	30	19	49
	25.2%	22.6%	24.1%
전문학원	11	16	27
	9.2%	19.0%	13.3%
전문대학 또는 대학 등	27	0	27
	22.7%	.0%	13.3%
매스미디어	16	5	21
	13.4%	6.0%	10.3%
선배, 동료, 아로마테라피스트	17	43	60
	14.3%	51.2%	29.6%
기타	18	1	19
	15.1%	1.2%	9.4%
전체	119	84	203
	100.0%	100.0%	100.0%

*복수응답

[표 4-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로마테라피 교육을 받은 장소에 대해 살펴보면 선배, 동료, 아로마테라피스트가 29.6%로 가장 높음을 보였고 다음으로 제품회사가 24.1%, 전문학원, 전문대학 또는 대학 등이 각각 13.3%, 매스미디어가 10.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에 따라서는 한국인은 제품회사가 25.2%로 가장 높음을 보였고 반면에 중국인은 선배, 동료, 아로마테라피스트가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3.2.6 아로마테라피 교육내용

[표 4-12] 국적에 따른 아로마테라피 교육 내용 중 필요한 것

	한국인	중국인	전체	$\chi^2(p)$
아로마테라피 오일의 효능에 대한 교육	40	23	63	10.677 (.058)
	30.8%	32.9%	31.5%	
아로마테라피 오일을 부가하기 위한 블렌딩에 관한 교육	18	10	28	
	13.8%	14.3%	14.0%	
아로마테라피 오일의 안전성에 관련한 교육	19	5	24	
	14.6%	7.1%	12.0%	
아로마테라피 오일의 주요 성분과 아로마 화학에 관련한 교육	26	6	32	
	20.0%	8.6%	16.0%	
아로마테라피 자격증 과정 교육	11	12	23	
	8.5%	17.1%	11.5%	
잘 모르겠다	16	14	30	
	12.3%	20.0%	15.0%	
전체	130	70	200	
	100.0%	100.0%	100.0%	

[표 4-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로마테라피 교육 내용 중 필요한 것에 대해 살펴보면 아로마테라피 오일의 효능에 대한 교육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다음으로 아로마테라피 오일의 주요 성분과 아로마 화학에 관련한 교육이 16.0%, 잘 모르겠다 15.0%, 아로마테라피 오일을 부가하기 위한 블렌딩에 관한 교육이 14.0% 등의 순이었다.

한국과 중국에 따라서는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아로마테라피 오일의 효능에 대한 교육이나 아로마테라피 오일을 부가하기 위한 블렌딩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국적과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4.3.2.7 아로마테라피의 사전지식과 이용경험이 아로마테라피 전체효과인식 에 미치는 영향

[표 4-13] 국적별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이용경험이 아로마테라피 효과 인식 전체에 미치는 영향

		B	표준오차	β	t	p
한국인	(상수)	.832	.306		2.718	.007
	사전지식	.780	.042	.841	18.467** *	.000
	이용 경험(0:없음, 1:있음)	-.049	.153	-.014	-.322	.748
	총 이용 기간	.066	.036	.091	1.857	.065
	이용 횟수	-.038	.035	-.048	-1.065	.289
	F=112.469*** $p<.001$ $R^2=.752$					
중국인	(상수)	.452	.476		.951	.344
	사전지식	.755	.064	.798	11.804** *	.000
	이용 경험(0:없음, 1:있음)	.188	.250	.052	.750	.456
	총 이용 기간	.047	.048	.072	.976	.332
	이용 횟수	-.009	.051	-.012	-.172	.864
	F=46.438*** $p<.001$ $R^2=.710$					

*** $p<.001$

[표 4-1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적별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이용경험이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인의 경우에는 설명력은 75.2%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112.469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전지식($\beta=.841$, $p<.0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로마 테라피 사전지식이 높아지면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 전체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중국인의 경우에는 설명력은 71.0%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46.438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전지식($\beta=.798$, $p<.0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이 높아지면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 전체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4.3.2.8 아로마테라피의 사전지식과 이용경험이 아로마테라피 생리적 효과인식에 미치는 영향

[표 4-14] 국적별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이용경험이 아로마테라피 생리적 효과인식에 미치는 영향

		B	표준오차	β	t	p
한국인	(상수)	.428	.340		1.258	.210
	사전지식	.821	.046	.823	17.717** *	.000
	이용 경험(0:없음, 1:있음)	.063	.170	.016	.368	.713
	총 이용 기간	.083	.039	.105	2.101*	.037
	이용 횟수	-.042	.039	-.050	-1.076	.284
	F=107.807*** $p<.001$ $R^2=.747$					
중국인	(상수)	.794	.560		1.416	.161
	사전지식	.840	.075	.810	11.146** *	.000
	이용 경험(0:없음, 1:있음)	-.113	.295	-.028	-.381	.704
	총 이용 기간	.014	.057	.019	.245	.807
	이용 횟수	.058	.060	.070	.964	.338
	F=37.652*** $p<.001$ $R^2=.665$					

* $p<.05$, *** $p<.001$

[표 4-1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적별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이용경험이 아로마테라피 생리적 효과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인의 경우에는 설명력은 74.7%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107.807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아로마테라피 생리적 효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전지식($\beta=.823$, $p<.001$), 총 이용 기간($\beta=.105$, $p<.05$)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이 높아지고 총 이용기간이 길어지면 아로마테라피 생리적 효과인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 순위는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총 이용기간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경우에는 설명력은 66.5%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37.652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아로마테라피 생리적 효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전지식($\beta=.810$, $p<.0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이 높아지면 아로마테라피 생리적 효과인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4.3.2.9 아로마테라피의 사전지식과 이용경험이 아로마테라피 심리적 효과인식에 미치는 영향

[표 4-15] 국적별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이용경험이 아로마테라피 심리적 효과인식에 미치는 영향

		B	표준오차	β	t	p
한국인	(상수)	1.845	.442		4.171	.000
	사전지식	.668	.061	.700	10.944 ^{**} _*	.000
	이용 경험(0:없음, 1:있음)	.007	.221	.002	.031	.975
	총 이용 기간	.054	.052	.072	1.040	.300
	이용 횟수	-.051	.051	-.064	-1.008	.315
	F=39.311 ^{***} $p<.001$ $R^2=.517$					
중국인	(상수)	.298	.528		.565	.574
	사전지식	.664	.071	.687	9.354 ^{***}	.000
	이용 경험(0:없음, 1:있음)	.791	.278	.214	2.849 ^{**}	.006
	총 이용 기간	.037	.053	.055	.687	.494
	이용 횟수	-.004	.057	-.006	-.076	.940
	F=36.353 ^{***} $p<.001$ $R^2=.657$					

^{**} $p<.01$, ^{***} $p<.001$

[표4-1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적별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이용경험이 아로마테라피 심리적 효과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인의 경우에는 설명력은 51.7%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39.311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아로마테라피 심리적 효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전지식($\beta = .700$, $p < .0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이 높아지면 아로마테라피 심리적 효과인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중국인의 경우에는 설명력은 65.7%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36.353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아로마테라피 심리적 효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전지식($\beta = .687$, $p < .001$), 이용경험($\beta = .214$, $p < .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아로마테라피—사전지식이 높아지면 아로마테라피 심리적 효과인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 순위는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이용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4.3.2.10 아로마테라피의 사전지식과 이용경험이 아로마테라피 대뇌기능강화인식에 미치는 영향

[표4-16] 국적별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이용경험이 아로마테라피 대뇌기능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B	표준오차	β	t	p
한국인	(상수)	.713	.414		1.724	.087
	사전지식	.789	.057	.779	13.828***	.000
	이용 경험(0:없음, 1:있음)	-.060	.207	-.016	-.293	.770
	총 이용 기간	.033	.048	.041	.682	.496
	이용 횟수	-.019	.048	-.023	-.409	.683
	F=60.633*** $p<.001$ $R^2=.621$					
중국인	(상수)	-.263	.659		-.399	.691
	사전지식	.857	.089	.755	9.676***	.000
	이용 경험(0:없음, 1:있음)	.185	.347	.043	.535	.594
	총 이용 기간	.018	.067	.023	.268	.790
	이용 횟수	.035	.071	.039	.499	.620
	F=30.128*** $p<.001$ $R^2=.613$					

*** $p<.001$

[표 4-1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적별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이용경험이 아로마테라피 대뇌기능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인의 경우에는 설명력은 62.1%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60.633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아로마테라피 대뇌기능강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전지식($\beta=.779$, $p<.0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이 높아지면 아로마테라피 대뇌기능강화 인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중국인의 경우에는 설명력은 61.3%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30.128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아로마 테라피 대뇌기능강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전지식($\beta=.755$, $p<.0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이 높아지면 아로마테라피 대뇌기능강화 인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4.3.2.11 아로마테라피의 사전지식, 이용경험이 아로마테라피 부작용 인식에 미치는 영향

[표 4-17] 국적별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이용경험이 아로마테라피 부작용 인식에 미치는 영향

		B	표준오차	β	t	p
한국인	(상수)	.245	.401		.610	.543
	사전지식	.837	.055	.792	15.120 ^{**} _*	.000
	이용 경험(0:없음, 1:있음)	-.071	.200	-.018	-.357	.722
	총 이용 기간	.074	.047	.089	1.591	.114
	이용 횟수	-.032	.046	-.036	-.698	.486
	F=75.911 ^{***} $p<.001$ $R^2=.672$					
중국인	(상수)	.875	.678		1.290	.201
	사전지식	.678	.091	.660	7.431 ^{***}	.000
	이용 경험(0:없음, 1:있음)	-.053	.357	-.014	-.148	.882
	총 이용 기간	.105	.069	.149	1.530	.130
	이용 횟수	-.101	.073	-.123	-1.387	.170
	F=18.875 ^{***} $p<.001$ $R^2=.498$					

^{***} $p<.001$

[표 4-1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적별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 이용경험이 아로마테라피 부작용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인의 경우에는 설명력은 67.2%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75.911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아로마테라피 부작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전지식($\beta = .792, p < .0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이 높아지면 아로마테라피 부작용 인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중국인의 경우에는 설명력은 49.8%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18.875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아로마테라피 부작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전지식($\beta = .660, p < .0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로마테라피 사전지식이 높아지면 아로마테라피 부작용 인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4.3.3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과 만족도가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표 4-18] 국적별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 아로마테라피 만족도가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B	표준오차	β	t	p
한국인	(상수)		1.349	.332		4.064	.000
	효과 인식	생리적 효과인식	.134	.119	.184	1.130	.261
		심리적 효과인식	.050	.088	.065	.561	.576
		대뇌기능강화 인식	.078	.099	.108	.791	.431
		부작용 인식	-.052	.088	-.075	-.590	.556
	만족도	안정성	.074	.090	.088	.829	.408
		편리성	.043	.076	.048	.561	.576
		품질	.029	.077	.032	.373	.710
		효능	.125	.096	.141	1.298	.196
		향	.101	.070	.128	1.430	.155
		가격	.159	.056	.210	2.852**	.005
	F=12.706*** p<.001 R ² =.472						
중국인	(상수)		.493	.478		1.030	.306
	효과 인식	생리적 효과인식	.155	.130	.182	1.192	.237
		심리적 효과인식	-.193	.137	-.211	-1.408	.163
		대뇌기능강화 인식	.011	.126	.014	.088	.930
		부작용 인식	-.053	.111	-.062	-.482	.631
	만족도	안정성	.148	.136	.144	1.089	.280
		편리성	.234	.149	.232	1.572	.121
		품질	.365	.164	.339	2.228*	.029
		효능	-.032	.154	-.034	-.207	.837
		향	.308	.106	.327	2.900**	.005
		가격	-.048	.146	-.045	-.327	.745
	F=12.802*** p<.001 R ² =.647						

* $p<.05$, ** $p<.01$, *** $p<.001$

[표 4-1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적별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 아로마테라피 만족도가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인의 경우에는 설명력은 47.2%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12.706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가격($\beta=.210$, $p<.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중국인의 경우에는 설명력은 64.7%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12.802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품질($\beta=.339$, $p<.05$), 향($\beta=.327$, $p<.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품질, 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 순위는 품질에 대한 만족도, 향에 대한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9] 국적별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 아로마테라피 만족도가 아로마 테라피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B	표준오차	β	t	p	
한국인	(상수)	1.252	.320		3.913	.000	
	효과 인식	생리적 효과인식	.108	.112	.148	.964	.336
		심리적 효과인식	.052	.083	.067	.620	.536
		대뇌기능강화 인식	.074	.096	.101	.767	.445
		부작용 인식	-.039	.085	-.055	-.454	.650
	만족도	.554	.076	.524	7.311***	.000	
	F=26.512*** $p<.001$ $R^2=.469$						
중국인	(상수)	.569	.458		1.241	.218	
	효과 인식	생리적 효과인식	.195	.127	.230	1.533	.130
		심리적 효과인식	-.229	.133	-.251	-1.726	.088
		대뇌기능강화 인식	-.010	.116	-.013	-.088	.930
		부작용 인식	-.031	.106	-.035	-.287	.775
	만족도	.953	.128	.818	7.471***	.000	
	F=24.333*** $p<.001$ $R^2=.619$						

*** $p<.001$

[표4-1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적별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 아로마테라피 만족도가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인의 경우에는 설명력은 46.9%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26.512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만족도 ($\beta=.524$, $p<.001$)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로마테라피 만족도가 높아지면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중국인의 경우에는 설명력은 61.9%를 설명하며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F값은 24.333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만족도 ($\beta=.818$, $p<.0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로마테라피 만족도가 높아지면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연구한계점

5.1 연구결과

본 연구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아로마테라피 효과에 대한 인식차이, 인식 차이가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이유를 검증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아로마테라피 응용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마련하고, 보다 정확한 소비자의 니즈와 원츠를 분석함으로써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로마테라피 서비스 방향과 아로마테라피 서비스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을 통한 분석과 설문지를 통한 실증연구를 함께 실시하였다. 연구결론을 연구문제 순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기술한다.

첫째, 한국인과 중국인의 아로마테라피 효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한국인과 중국인의 아로마테라피 효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면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아로마테라피의 생리적 효과인식, 심리적 효과인식, 대뇌기능 강화 인식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었다. 부작용 인식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보면 피부 발적, 발진, 건조, 가려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인보다 중국인의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 외 두통,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긴장, 예민해짐, 메스꺼움, 구토증상에 대해서는 국적별로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한국인은 아로마테라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국인은 피부 관리실과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로마테라피 서비스 가격은 양국인 모두 적당하다고 생각했으며, 아로마오일을 이용한 마사지법으로 스트레스 완화나 근육이완, 통증완화를 한 달에 1회~ 4회 이용하고 있었다. 아로마테라피를 이용한 총 시간은 양국 공히 1개월 미만~ 5년 이상, 이용한 아로마테라피의 종류는 한국인은 1종류, 중국인은 10종류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인은 라벤더, 유칼립투스, 일랑일랑 오일을 선호하는 반면, 중국인은 라벤더,

로스, 프랑킨센스를 좋아했다. 또한 한국인은 아로마오일의 성분과 효능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중국인은 아로마오일의 효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람과 아로마테라피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비슷했다. 한국인은 아로마테라피를 제품생산회사에서, 중국인은 선배, 동료, 아로마테라피스트를 통해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인과 중국인의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사전지식 및 이용경험은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아로마테라피에 관한 사전지식과 이용경험은 한국인보다 중국인의 사전지식이 더 높았으나, 한국인의 아로마테라피 사용경험은 중국인의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아로마테라피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관심은 있지만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었으나, 중국인은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으로써 중국인의 아로마테라피 효과에 대한 신뢰감이 낮았다. 또한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사전지식 및 이용경험이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에 미치는 영향 중 대뇌기능강화 인식과 부작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양국인 모두 사전지식이 많으면 효과인식도 높았으나, 이용경험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국인의 아로마테라피의 생리적 효과 인식은 사전지식과 이용기간이 많을수록 높았고, 중국인은 사전지식이 높을수록 효과인식이 높았다. 또한 아로마테라피의 심리적 효과인식은 한국인은 사전지식, 중국인은 이용한 경험 이 있고 사전지식이 많을수록 효과인식이 높았다.

셋째, 한국인과 중국인의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과 만족도는 향후 지속 이용의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아로마테라피 효과인식과 만족도가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속이용의도가 높았다. 특히 한국인은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가 많았고, 중국인은 품질, 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가 많았다.

5.2 연구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음으로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상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인과 중국인 조사참여자 간 연령별, 월평균 소득별, 학력별, 직업별 검증 결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분석결과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

둘째, 한국인은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사전지식과 인식수준이 높고 이용경험도 많았으나, 아로마테라피가 대뇌기능을 강화하고 심리적 육체적 문제들을 해결해준다는 인식이 적었다. 이는 아로마테라피에 필요한 아로마에센셜오일 성분에 대한 과학적이고 의학적 아로마테라피의 효과를 교육과 인식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나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심층적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중국인은 아로마테라피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었다. 이는 아로마테라피가 대중적으로 사용이 많아지고, 실용화되어야 해결될 과제이나 본 연구에서는 아로마테라피의 효과에 대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임상증거를 반복적으로 보여줄 수 없었고, 아로마테라피효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셋째, 한국인은 아로마테라피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관심은 있지만 접할 기회가 없어서라고 했다. 이는 아로마오일의 효능교육, 아로마오일의 주요성분 및 화학구조에 관련한 교육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나 본 연구는 이에 관한 심층적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중국인은 아로마테라피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효과가 없어서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 품질, 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문제 역시 본 연구에서는 심층적으로 검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한계점이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아로마테라피의 효과가 향기, 즉 후각과 미묘한 감성과 관련한 것이어서 검증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아로마테라피가 몸과 마음, 즉 심리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 수치로 기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 기술한 것과 같이 본 연구의 분명한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는 이제까지 미흡했던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인식차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검증함으로써, 양국인의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인식을 학술적 데이터로 축적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앞으로 한국인과 중국인을 위한 아로마테라피 서비스의 방향과 서비스 내용을 탐색하고 가늠하게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성과라고 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보완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이에 관한 본 연구자의 연구 전체를 마치려고 한다.

연구를 시작해서 마치고까지 본 연구자를 위해 아낌없는 도움을 베풀어주신 나의 친절하고 자상한 지도교수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원장 명광주 교수님께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한국에서의 오랜 유학생 생활 동안 먼 고향에서 나를 믿고 응원해주신 고향의 부모님, 그리고 나와 함께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는 동안 즐겁게 웃는 모습으로 대해준 한국의 친구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인숙. (2017). "뇌파촉진마사지가 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현미. (2018). "아로마요법의 스트레스 반응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디자인조형학과 박사학위논문.
- 강지영. (2018). "에센셜 오일이 여드름 피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현미. (2018). "아로마요법의 스트레스 반응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디자인조형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미은. (2017). "아로마테라피가 수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을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 (2019). 부미용사의 아로마테라피 적용경력에 따른 에센셜 오일 인지도 및 활용실태.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상인. (2019).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인지과제 수행과 향기 흡입이 심박변이도와 뇌파 활성화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뇌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노기옥. (2017). "아로마 자가발반사 마사지가 향암화학요법을 받는 부인암 환자의 말초신경병증, 말초피부온도,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석훈. (2016). "아로마테라피 DIY 제품 제조경험자의 에센셜오일에 대한 활용실태와 만족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루위신. (2018). "실감미디어 뉴스콘텐츠의 실재감, 사용자 경험, 지속적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보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학위논문.

- 명광주. (2006). "아트워크 양식에 따른 광고효과의 차이".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은실. (2015). "아로마 에센셜오일 흡입이 자율신경계 반응, 뇌파 및 집중력에 미치는 효과". 을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해순. (2011). "소비자들의 주거래 은행 선택 결정요인 및 지속적 이용의도에 관한연구-설문조사(국민,신한,우리은행)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해리. (2014). "심리생리학적 평가에 의한 방형서 의류소재의 힐링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류환경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미화. (2015). "아로마요법에 의한 대뇌자극이 기억 인출 과정에 미치는 영향: 설단현상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숙. (2007). "아로마 손마사지가 노인의 기억력 및 불안 ,우울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란희. (2019). "페퍼민트, 라벤더 아로마 요법이 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시나. (2011). "향기흡입이 밤번근무 간호사의 수면과 피로회복에 미치는 영향". 가천의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나래. (2018). "O2O플랫폼 서비스 이용이 헤어 시술상품 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O2O플랫폼 경험여부와 응답자 특성을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현. (2018). "아로마테라피가 중년여성의 스트레스반응, 수면 및 면역에 미치는 효과". 을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병주. (2007). "우울증과 자존감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우울증 치유연구". 충신대학교전문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숙. (2013). "아로마 향 첨가 제품에 대한 이용현황과 인지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성, 유언나, 박경숙. (2008). "향기흡입법이 복부수술 환자의 수술 전 불안 감소 에 미치는 효과". 성인간호학회지, 20(2), 126-135.

- 이화진. (2013). "스파에서의 아로마 활용실태 및 부작용 경험".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형. (2010). "서비스회복노력이 인터넷이용자의 지속적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유출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희영. (2019). "코스메슈티컬의 품질이 이용자의 지각된 가치와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남주. (2019). "아로마 향에 대한 후각테스트 및 선호도조사 - 미용 전공 학생들을 중심으로 -". 동덕여자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유소현. (2016). "라벤더 향흡입이 대장암 수술환자의 유치도뇨관 제거 후통증 및 배뇨증상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진. (2013). "아로마테라피가 직장여성의 수면,피로, 우울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버가못, 클라리세이지, 라벤더오일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비만미용향장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진. (2014).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대한 인식과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진. (2013). "아로마테라피가 직장여성의 수면, 피로, 우울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버가못, 클라리세이지, 라벤더 오일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비만미용향장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재명. (2014). "식물성 리날롤 아로마테라피가 전업주부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유정. (2018).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아로마 사용유형과 아로마테라피 인식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희. (2002). "사전지식 활성화 프로그램이 글의 중요도 평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정. (2011). "에센셜 오일(Essentialoils)의 활용형태와 시행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연아. (2014). "아로마테라피 의 생리적, 신체적, 심리적치유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호서대학교 벤처전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월. (2019). "배달앱 서비스 실패가 불만족 및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한·중 소비자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비즈니스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서연. (2016). "아로마오일 향흡입요법이 과제중 중년여성의 식용, 수면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무작위 대조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지유. (2017). "피부미용사의 아로마테라피 부작용 경험에 따른 아로마 에센셜 오일 인식 및 이용실태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은희. (2017). "뷰티산업에서 IoT기반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스마트 미러 품질과 지속이용의도 관계에서 감정반응(PAD)의 매개효과 분석 연구"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文水志. (2018). "유튜브 기반 뷰티콘텐츠의 특성이 콘텐츠 만족도와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관여도수준(저 vs 고)을 중심으로". 成均馆 大学校 文化融合大学院 文化融合学科 硕士论文.
- 朱松国. (2010). "인터넷 쇼핑에서 소비자의 사전지식 수준에 대한 사용후기 측면성 및 준거가격수준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 SU QIANYUAN. (2018). "중국여성 소비자의 화장품 소비에서소비체험, 소비 체험가치, 지속적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원 소비자학과. 석사학위논문.
- WEN YUNHAN. (2019). "중국 인터넷 라이브 게임 방송 이용자의 지속사용의도와 구매의도에 대한 연구"-사회적 시청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Julia Lawless. (2009). 『아로마테라피』. 고혜정, 홍혜경, 임미혜, 최정숙, 김수경, 박재연 역. 도서출판 진로. p.178-210.
- 강영희, 강경홍, 김명원. (2008). 『생명과학대사전』. 서울, 아카데미서적.
- 김문주, 김윤정, 전해정, 최성임, 황금순. (2014). 『아로마테라피』. 청구문화사. p22-25.
- 김혜균, 박수정, 윤은재, 임양이. (2014). 『메르디안 아로마테라피』. 도서출판 구민사. 서울. p88-89.

- 고일선. (2005). 『간호실무기초Ⅱ』. 서울: 은하출판사. p24-36.
- 이상건, & 김주향. (2011). 『패밀리 레스토랑 고객의 소비경험과 신뢰, 고객만족 및 재구매의 도의 관계. 관광연구, p.26(1), 287-309.
- 안홍석 외. (2006). 『아로마테라피 솔루션』. 정담미디어, 서울, p.18.
- 윤중수. (2010). 『임상뇌파학』. 서울: 고려의학 .
- 윤정식, 김수경. (2013). 『생활의 향기 Herb』. p.11.
- 오홍근. (2002). 『아로마테라피 핸드북』. 서울 : 양문.
- 박미경, 문은숙. (2018). 『 스토리텔링 아로마테라피』. 도서출판 일일사, p.41.
- 조태동. (2003). 『여성을 위한 아로마테라피』. 서울 : 대원사.
- 최윤정 譯. (2006). 『마음을 치유하는 아로마테라피』. 군자출판사.
- 토시아키모. (2003). 『집중력을 기른다』. 서울: 지식공작소.

인터넷

[http://www. doopedia.co.kr](http://www.doopedia.co.kr).

2. 국외문헌

- 钟瑞敏, 王羽梅, 曾庆孝. (2005). "芳香精油在食品保藏中的应用性研究进展" 华南理工大学轻工与食品学院.
- 克莉希.怀伍德. (2010). 『芳香百科』. 牛尔译. 上海: 上海图书出版公司.
- 宋晓雷. (2012). 『芳香美容在专业美容教学中的应用. 上海第二工业大学, 高等职业教育(国际)学院.
- 大態輝雄. (2007). 『臨床腦波學』, 第5版, 東京: 醫學書院, p.85-139.
- Anderson, R. J, Freedland, K. E, Clouse, R. E, Lustman, P. J. (2001). The prevalence of comorbid depression in adults with diabetes: a meta-analysis. Diabetes Care, p.24:1069-1078.
- Association AP. (2013). D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p.361-422.
- Barrett, K. E. , Barman, S. M. , Boitano, S. (Ganong's). (2013). 의학생리학. 서울, 대한의학서적.
- Han, S. H., Hur, M. H., & Kang, J. Y. (2002). Effects of Aroma therapy on the Stress Response of College Women with Dysmenorrhea during Menstru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p.32(3), 317-326.
- Lee SJ, Park CS, Kim BJ, Lee CS, Cha B, Lee D. (2015). Sleep and resilience.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p.22(2):53-6.
- McDougall, H. G. & Levesque, T.(2000). Customer satisfaction with services: Putting perceived value into the equation, Journal of Service Marketing, 14(5), pp.392-410.
- Murtagh J. (1998). General practice. 2nd edn,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Australia,
- Price L. (2007). Aromatherapy for health professionals: Elsevier Health Sciences.
- Schnaubelt K. (1995). Advanced aromatherapy. Healing Art Press, USA
- Tyler V. (1994). Herbs of choice. Haworth Press, USA. 재인용

〈부록1, 한국어설문지〉



한국인과 중국인의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인식과
지속이용의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 유학생 조민산 입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 설문지를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한국인과 중국인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인식과 지속이용의도를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조민산
email: min-shan33@naver.com

지도교수: 명광주

자료 분류용 질문 (통계 분류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1. 귀하의 거주지역은?

- ☐ 1) 한국 ☐ 2) 중국 ☐ 3) 기타(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성별은?

- ☐ 1) 남성 ☐ 2) 여성

3. 귀하의 연령은?

- ☐ 1) 20대 미만 ☐ 2) 20대 ☐ 3) 30대 ☐ 4) 40대
☐ 5) 50대 ☐ 6) 60대

4.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

- ☐ 1) 100만원 미만 ☐ 2) 101~200만원 ☐ 3) 201~300만원
☐ 4) 301~400만원 ☐ 5) 401~500만원 ☐ 6) 501~600만원
☐ 7) 601만원 이상

5. 귀하의 학력은?

- ☐ 1) 고졸 미만 ☐ 2) 고졸 ☐ 3) 전문대졸 ☐ 4) 4년제 대학재학
☐ 5) 4년제 대학졸 ☐ 6) 대학원재학 ☐ 7) 대학원재학 졸

6. 귀하의 직업은?

- ☐ 1) 학생
☐ 2) 주부
☐ 3) 자영업
☐ 4) 전문직 (변호사/의사/교수 등)
☐ 5) 사무직(회사/공무원 등)
☐ 6) 서비스직 및 판매직
☐ 7) 관리직
☐ 8) 기술직

※ 귀하의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이용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1. 귀하는 아로마테라피를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 1) 예 (2번으로 이동) ☐ 2) 아니요 (1-1, 1-2번으로 이동 후 설문 종료)

1-1. 귀하는 아로마테라피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 ☐ 1) 가격이 비싸서
- ☐ 2) 효과가 없어서
- ☐ 3) 관심은 있지만 접할 기회가 없어서
- ☐ 4) 관심이 없어서
- ☐ 5) 구입경로가 쉽지 않아서

1-2. 귀하는 아로마테라피를 이용계획이 있나요?

☐ 1) 있다 ☐ 2) 없다 ☐ 3) 잘 모르겠다

2. 귀하는 아로마테라피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나요?

- ☐ 1) 피부관리실/병원
- ☐ 2) 매스미디어(인터넷,tv,신문,잡지)
- ☐ 3) 아로마 테라피 교육프로그램
- ☐ 4) 아로마 전문샵(백화점 포함)
- ☐ 5) 가족/친구/동료
- ☐ 6) 기타

3. 귀하가 아로마테라피를 이용하신 총 기간은?

- ☐ 1) 1달 미만
- ☐ 2) 2개월~6개월 미만
- ☐ 3) 6개월~1년 미만
- ☐ 4) 1년~3년 미만
- ☐ 5) 3년~5년 미만
- ☐ 6) 5년이상

4. 귀하가 사용하고 계신 아로마테라피는?

☐ 1) 아로마오일 ☐ 2) 아로마 화장품 ☐ 3) DIY 아로마 용품 ☐ 4)기타

5.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아로마테라피 방법은?

- ☐ 1) 마사지법
- ☐ 2) 흡입법
- ☐ 3) 스팀법
- ☐ 4) 방향법(램프,디퓨저)
- ☐ 5) 수용법(목욕법 ,족욕, 좌욕)
- ☐ 6) 복용법

6. 귀하가 아로마테라피를 이용하는 횟수는?

- ☐ 1) 한 달 1회 미만
- ☐ 2) 한 주 1회 미만
- ☐ 3) 주 1회
- ☐ 4) 주 2~3회
- ☐ 5) 주 4회~5회
- ☐ 6) 매일

7. 귀하가 아로마테라피를 이용하는 이유는?

- ☐ 1) 문제성 피부 관리(여드름, 노화, 보습)
- ☐ 2) 신체증상 완화(비염, 벌레물린곳, 아토피 등)
- ☐ 3) 스트레스완화(심리적,정신적 안정)
- ☐ 4) 근육이완 ,통증 완화
- ☐ 5) 비만관리
- ☐ 6) 공기 방향제
- ☐ 7) 기타

8. 귀하가 생각하는 아로마테라피 가격은?

- ☐ 1) 매우 저렴하다
- ☐ 2) 저렴하다
- ☐ 3) 보통이다
- ☐ 4) 비싸다.
- ☐ 5) 매우 비싸다.

9. 귀하가 이용하고 계신 아로마테라피 오일의 종류는 몇 가지 있나?

- ☐ 1) 1종류 ☐ 2) 2~5종류 ☐ 3) 6~10종류 ☐ 4) 10종류 이상
☐ 10)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10. 귀하는 가장 선호하는 아로마테라피 오일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 1) 라벤더 ☐ 2) 레몬 ☐ 3) 오렌지 ☐ 4) 로즈 ☐ 5) 클라리세이지
☐ 6) 일랑일랑 ☐ 7) 네롤리 ☐ 8) 자스민 ☐ 9) 유칼립투스
☐ 10) 티트리 ☐ 11) 카모마일 ☐ 12) 페퍼민트 ☐ 13) 제라늄
☐ 14) 로즈마리 ☐ 15) 버가못 ☐ 16) 프랑킨센스 ☐ 17) 샌달우드
☐ 18) 싸이프러스 ☐ 19) 그레이프푸룻 ☐ 20) 로즈우드
☐ 21) 마조람 ☐ 22) 생강 ☐ 23) 시드우드 ☐ 24) 레몬스라스

11. 귀하는 아로마테라피 교육을 받았다면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나요?

- ☐ 1) 제품회사
☐ 2) 전문학원
☐ 3) 전문대학 또는 대학 등
☐ 4) 선배, 동료 , 아로마테라피스트
☐ 5) 매스미디어(인터넷, 방송)
☐ 6) 기타

12. 귀하가 교육 내용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아로마테라피 오일의 효능에 대한 교육
☐ 2) 아로마테라피 오일 을 부가하기 위한 블렌딩에 관한 교육
☐ 3) 아로마테라피 오일의 안전성에 관련한 교육
☐ 4) 아로마테라피 오일의 화학적 구조 관련한 교육
☐ 5) 아로마테마피 자격증 과정 교육
☐ 6) 잘 모르겠다

※ 귀하의 아로마테라피 효과와 사전지식 측정을 위한 문항입니다.

		전혀 모름	다 거의 모름	약간 모름	보 통	약간 알고 있음	거의 잘알 고있 음	매우 잘알 고있 음
아로마 테라피 지식	아로마테라피 오일은 식물의 줄기, 뿌리, 꽃, 열매 등에서 추출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아로마테라피 오일은 피부나 호흡을 통해 흡수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아로마테라피 오일은 생산지역 따라서 화학 성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효능에 차이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아로마테라피 오일은 순수 100% 고농축 오일이므로 캐리어 오일에 희석해서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임신이나 고혈압, 심장질환, 우울증 등에 따라 아로마테라피 오일을 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아로마테라피 오일은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므로 사용 시 주의를 필요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몇 가지 아로마테라피 오일을 블렌딩하여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아로마테라피 오일은 햇빛, 열, 산소, 습기 등에 약하므로 보관 시 주의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모름	다 거의 모름	약간 모름	보통	약간 알고 있음	거의 잘알고 있음	매우 잘알고 있음
아로마 테라피	혈압, 통증의 조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비만 조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생리적 효과인 식	수면 조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피부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모름	다 거의 모름	약간 모름	보통	약간 알고 있음	거의 잘알고 있음	매우 잘알고 있음
아로마 테라피	스트레스 의 조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우울 조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심리적 효과인 식	불안 조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피로 조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모름	다거의 모름	약간 모름	보통	약간 알고 있음	거의 잘알고 있음	매우 잘알고 있음
아로마 테라피 대뇌기 능강화 인식	뇌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지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집중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억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모름	다거의 모름	약간 모름	보통	약간 알고 있음	거의 잘알고 있음	매우 잘알고 있음
아로마 테라피 부작용 인식	피부발적 발진 두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어지럼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피부건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려움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슴 답답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긴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예민해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메스꺼움 구토증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귀하의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만족도 측정을 위한 문항입니다.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아로마 테라피 만족도	가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효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품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편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귀하의 아로마테라피 지속이용의도 평가에 대한 문항입니다

나는 아로마테라피 이용 후 ~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 다	거의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계속 사용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용 빈도를 더 늘릴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투자비용을 더 늘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같은 효과가 있는 주사, 약, 기기가 있더라도 계속 아로마테라피를이용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록2, 중국어설문지〉



韩国人和中国人对芳香疗法的认知和持续使用意图

亲爱的，您好！

我是在韩国汉城大学 美容艺术学院的研究生。首先感谢您在百忙中抽出时间参与本次问卷调查。本问卷是为了研究韩国人和中国人对芳香疗法的认知及持续使用意识而设置的问卷调查。

您提供的任何内容绝对保密，仅作为研究使用。恳请您按照个人实际情况予以真实的作答。

关于问卷，若有不清楚的或者想进一步了解调查进展及研究结果的话，希望您通过下方邮件向调查员咨询。

再次感谢您参与本次问卷调查！

2019年12月

汉城大学艺术研究院

美容艺术科

研究人：赵敏杉

Email: min-shan33@naver.com

指导教师：명광주

以下是您的基本信息（仅作统计分类使用）

1. 您现居住地？

☐ 1) 韩国 ☐ 2) 中国 ☐ 3) 其他(请终止调查，再次表示感谢)

2. 您的性别是？

☐ 1) 男 ☐ 2) 女

3. 您的年龄是？

☐ 1) 20岁未満 ☐ 2) 20代 ☐ 3) 30代
☐ 4) 40代 ☐ 5) 50代 ☐ 6) 60代

4. 您月平均收入？

☐ 1) 6000元以下
☐ 2) 6000-12000元
☐ 3) 12000-18000元
☐ 4) 18000-24000元
☐ 5) 24000-30000元
☐ 6) 30000-36000元
☐ 7) 36000以上

5. 您的学历？

☐ 1) 高中毕业以下 ☐ 2) 高中毕业
☐ 3) 专科 ☐ 4) 本科
☐ 5) 研究生 ☐ 6) 研究生以上

6. 您的职业？

☐ 1) 学生
☐ 2) 家庭主妇
☐ 3) 私营业主／个体户
☐ 4) 专业类（律师／医生／教师等）
☐ 5) 办公类（公务员／公司职员／银行职员）
☐ 6) 销售类／服务类
☐ 7) 管理类 ☐ 8) 技术

※ .关于您对芳香疗法使用经历为参考

1. 您使用过芳香疗法吗？

- ☐ 1)是 (转问题 2)
☐ 2)没有 (1-1, 1-2回答完后 请终止并提交)

1-1. 您没使用过芳香疗法的原因？

- ☐ 1) 价格太高
☐ 2) 没有效果
☐ 3) 没有接触机会
☐ 4) 没关注过
☐ 5) 不容易买到

1-2. 您以后会考虑使用芳香疗法吗？

- ☐ 1) 会 ☐ 2) 不会 ☐ 3) 不是很清楚

2. 您是通过什么途径了解到芳香疗法的？

- ☐ 1) 美容院／医院
☐ 2) 媒体(互联网／电视／杂志／报纸)
☐ 3) 芳香精油 项目培训
☐ 4) 精油专卖店(包括百货店)
☐ 5) 亲戚／同事／朋友
☐ 6) 其他

3. 您使用芳香精油总的时间是？

- ☐ 1) 一个月未滿
☐ 2) 2～6个月未滿
☐ 3) 6个月 ～ 一年未滿
☐ 4) 一年 ～ 三年未滿
☐ 5) 三年 ～ 五年未滿
☐ 6) 5年以上

4. 您使用芳香疗法是？

- ☐ 1) 芳香精油 ☐ 2) 芳香类化妆品
☐ 3) DIY芳香用品（肥皂等） ☐ 4)其他

5. 您使用芳香精油主要方法是？

- ☐ 1) 按摩法
☐ 2) 呼吸法
☐ 3) 湿布法
☐ 4) 香薰法
☐ 5) 沐浴法
☐ 6) 口服法

7. 您使用芳香精油的次数？

- ☐ 1) 一个月不足一次
☐ 2) 一个周不足一次
☐ 3) 一周一次
☐ 4) 一周2-3次
☐ 5) 一周4-5次
☐ 6) 每天

8. 您使用芳香精油的目的是？

- ☐ 1) 问题性皮肤管理（痘痘，衰老，保湿）
☐ 2) 缓解身体不适(鼻炎，蚊虫叮咬，过敏等)
☐ 3) 缓解压力(心理，精神安宁)
☐ 4) 放松肌肉，缓解疼痛
☐ 5) 肥胖管理
☐ 6) 空气清香
☐ 7) 其他

9. 您觉得精油价格怎样？

- ☐ 1) 非常优惠
- ☐ 2) 优惠
- ☐ 3) 一般
- ☐ 4) 昂贵
- ☐ 5) 非常昂贵.

10. 您使用过芳香精油有几种？

- ☐ 1)1种 ☐ 2)2~5种
- ☐ 3)6~10种 ☐ 4)10种以上
- ☐ 10)不直接使用精油

11. 请您选出最喜欢的三种芳香精油。

- ☐ 1)薰衣草 ☐ 2)柠檬 ☐ 3)橙子 ☐ 4)玫瑰 ☐ 5)鼠尾草
- ☐ 6)依朗☐ 7)橙花 ☐ 8)茉莉花☐ 9)蓝桉 ☐ 10)茶树
- ☐ 11)甘菊 ☐ 12)薄荷 ☐ 13)天竺葵 ☐ 14)迷迭香☐ 15)佛手柑
- ☐ 16)乳香☐ 17)檀香 ☐ 18)柏松☐ 19)葡萄柚
- ☐ 20)紫檀 ☐ 21)马郁兰 ☐ 22)生姜 ☐ 23)杉木 ☐ 24)柠檬草

12. 您曾接受过什么样的芳香疗法的培训？

- ☐ 1)产品公司
- ☐ 2)技能培训课程
- ☐ 3)朋友／美容师／自我学习
- ☐ 4)媒体（互联网／播报）
- ☐ 5)其他

13. 未来您期望芳香疗法什么内容的培训？

- ☐ 1) 芳香精油功能的培训
- ☐ 2) 芳香精油搭配的培训
- ☐ 3) 芳香疗法的安全性教育
- ☐ 4) 芳香精油主要化学成分的培训
- ☐ 5) 芳香师资格证的培训
- ☐ 6) 不是很清楚

※ 以下是您对芳香疗法所掌握知识的调查

		完全不懂	几乎不懂	有点不懂	一般	有点懂的	基本懂得	完全懂得
芳香疗法知识	芳香精油是从植物的根，茎，叶，果实或其他部位提取出来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芳香精油通过呼吸道或者皮肤吸收	①	②	③	④	⑤	⑥	⑦
	芳香精油原产地不同导致化学成分不同功能不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芳香精油100%高浓度载体油稀释后使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有些芳香精油孕妇或者高血压，心脏疾病患者避开使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芳香精油对皮肤，粘膜有刺激使用时小心注意	①	②	③	④	⑤	⑥	⑦
	几种芳香精油搭配使用效果相互促进	①	②	③	④	⑤	⑥	⑦

	芳香精油暴露在光， 热，湿气，空气中容 易变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	---	---	---

		完全 不懂	几乎 不懂	有点 不懂	一般	有点 懂的	基本 懂得	完全 懂得
芳 香 精 油 生 理 性 效 果 认 知	血压痛症 调节	①	②	③	④	⑤	⑥	⑦
	肥胖调节	①	②	③	④	⑤	⑥	⑦
	睡眠调节	①	②	③	④	⑤	⑥	⑦
	皮肤管理	①	②	③	④	⑤	⑥	⑦

		完全 不懂	几乎不 懂	有点 不懂	一般	有点 懂的	基本 懂得	完全 懂得
芳 香 精 油 心 理 性 效 果 认 知	压力调节	①	②	③	④	⑤	⑥	⑦
	抑郁调节	①	②	③	④	⑤	⑥	⑦
	不安调节	①	②	③	④	⑤	⑥	⑦
	疲劳调节	①	②	③	④	⑤	⑥	⑦

		完全不懂	几乎不懂	有点不懂	一般	有点懂的	基本懂得	完全懂得
芳香精油 大脑功能强化认知	脑波变化	①	②	③	④	⑤	⑥	⑦
	认知技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集中力	①	②	③	④	⑤	⑥	⑦
	记忆力	①	②	③	④	⑤	⑥	⑦

		完全不懂	几乎不懂	有点不懂	一般	有点懂的	基本懂得	完全懂得
芳香精油 副作用认知	皮肤发红 发疹 头疼 头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皮肤干燥 发痒	①	②	③	④	⑤	⑥	⑦
	胸闷	①	②	③	④	⑤	⑥	⑦
	紧张 敏感	①	②	③	④	⑤	⑥	⑦
	恶心 呕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以下是您对芳香精油使用后满意度的调查

		非常 不满	几乎 不满	倾向 不满	一般	还算 满意	大体 满意	非常 满意
芳香 疗法 满意 度	价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香味	①	②	③	④	⑤	⑥	⑦
	功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质量	①	②	③	④	⑤	⑥	⑦
	便利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安全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以下是您以后对芳香精油持续使用态度的调查

我使用芳香精油后 ~	绝不	不会	也许	一般	可能	会	肯定
会持续使用芳香疗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药物，注射，针灸， 仪器等和芳香疗法具 有等同效果仍会选择 持续使用芳香疗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会增加芳香疗法使用 的费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会提升芳香疗法的使 用频率							
会向他人推荐芳香疗 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问卷到此结束，感谢您的参与！

ABSTRACT

Perception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of Aroma Therapy of Korean and Chinese People

Shanshan Zhao

Major in Beauty Esthetic

Dept. of Beauty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roma therapy service that could maximize the customer satisfaction by verifying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effects of aroma therapy between Korean and Chinese people, effects of the perception on the continuous use intention of aroma therapy, and the reasons for the effects.

This study drew conclusions by analyzing the preceding researches and also conducting the empirical research through survey.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effects of aroma therapy between Korean and Chinese people?

Regarding the perception of effects of aroma therapy of Korean and Chinese people, Chinese people had more positive perception of physiological effects, psychological effects, and strengthening of cerebral functions of aroma therapy than Korean people. The verification of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side effec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kin irritation, rash, dryness and itching, with similar reactions by nationality to other headaches, dizziness, chest frustration, tension, aches and vomiting symptoms. Many Korean people used aroma therapy through the aroma therapy educational programs while a lot of Chinese people used skin care shops and clinics for it. People from both countries felt the price of aroma therapy service suitable. As a massage therapy using aroma oil, they used the stress relief, muscle relaxation, and pain relief for 1-4 times a month. The total hours of using aroma therapy were less than one month – five years or more for both countries. Regarding the type of aroma therapy used, Korean people were using one type while Chinese people were using ten types or more. Korean people preferred Lavender, Eucalyptus, and Ylang Ylang Oil while Chinese people preferred Lavender, Rose, and Frankincense. Also, Korean people cognized the necessity of education of ingredients and effectiveness of aroma oil while Chinese people were similarly divided into people who cognized the necessity of education of effectiveness of aroma oil, and people who were not sure about the education of aroma therapy. Korean people learnt about aroma therapy from product manufacturing companies while Chinese people learnt about it from seniors, colleagues, and aroma therapists.

Second, what are the effects of prior knowledge and use experience of aroma therapy on the perception of effects of aroma therapy of Korean and Chinese people?

Regarding the prior knowledge and use experience of aroma therapy, Chinese people showed the higher prior knowledge while Korean people showed about two times higher use experience of aroma therapy than Chinese people. Korean people did not use aroma therapy because there were no chances to experience it even though they had interest in it. In case of Chinese people, they perceived that there were no effects of it, so that their trust in the effects of aroma therapy was lower than Korean people. Also, regarding the effects of prior knowledge and use experience of aroma therapy on the perception of effects of aroma therapy, in the effects on the perception of strengthening of cerebral functions and perception of side effects, when the prior knowledge was higher in both countries, the perception of effects was also high. However, the use experience did not have effects on it. The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physiological effects of aroma therapy was high when the period of use was longer. The Chinese people's perception of effects was high when the prior knowledge was higher. Also, regarding the perception of psychological effects of aroma therapy, Korean people showed the high perception of effects when the prior knowledge was higher. Chinese people showed the high perception of effects when there were the use experience and high prior knowledge.

Third, how are the perception of effects and satisfaction of aroma therapy related to the continuous use intention of Korean and Chinese people?

In the effects of perception of effects and satisfaction of aroma therapy

on the continuous use intention, when the satisfaction was higher, the continuous use intention was high in both countries. Especially, in case of Korean people, when the satisfaction of price was high, the continuous use intention of aroma therapy was high. In case of Chinese people, when the satisfaction of quality and aroma was high, the continuous use intention of aroma therapy was high.

Even though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research targeting the people residing in Seoul and Shanghai, this study could not directly verify such practical and visible clinical evidences of the effects of aroma therapy, could not approach the education specialized in the effects of aroma therapy, had limitations to record its effects on body and mind as objective figures, and had several limitations to express the fragrance of aroma therapy into olfactory and delicate adjectives of emotion, so that it would be a bit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However,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accumulate the perception of aroma therapy of people from both countries as academic data, by verifying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aroma therapy of Korean and Chinese people, which has been insufficient so far. Practic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the exploration of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aroma therapy service for Korean and Chinese people, which could be a very important outcome.

【Key words】 Aroma Therapy, Perception, Prior Knowledge and Use Experience, Continuous Use Intention